

# 국경없는 노동자

세계화가 국제 이주에 미친 영향

## Workers without Frontiers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Peter Stalker 지음

최수연 옮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302호

Tel : 02-747-6831 Fax : 02-747-6832

http : //www.jcmk.org E-mail : jcmk@jcmk.org

최수연 : syc0304@hanmail.net

# 국경없는 노동자

세계화가 국제 이주에 미친 영향

## Workers without Frontiers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2000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국경없는 노동자’ 한국어판을 발간하면서

최의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최근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신고기간을 설정하여 미등록노동자들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러한 정책에는 미등록노동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결여된 채 단순히 체류의 합법 혹은 불법만 문제삼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귀국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내년 3월 31일까지 안전한(?) 생활을 위해 너도나도 신고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미등록 노동자들이 언제나 강제출국의 위기에 놓여 불안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손쉽게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 보증, 비행기 표 구입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기자 이러한 틈새를 통해 많은 사기사건이 생기고 엉뚱하게 여행사와 일부 부로커들만 이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송두리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접하면서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소위 3D 업종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생산을 하며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체류의 합법, 불법 여부만 파악해도 되는 존재인가? 현재 불법 체류 미등록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영세기업들은 하루 빨리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그냥 불법이라는 이유로 내년에 출국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주노동자들은 출국신고를 하기 위해 밥이나 물을 먹지 못하면서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불법이라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되어도 되는 것인가? 한국은 앞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이주노동자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허구적인 단일민족이념에 물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이주노동자문제를 올바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견적인 처방이나 이에 대한 당위적 대응으로서는 현재 우리가 당기고 있는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대응하고 또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세계노동기구(ILO)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소책자 “국경없는 노동자 세계화가 국제이주에 미친 영향”이란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세계화관점에서 이주노동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시작된 배경이나 이주의 역사 등에서 시작하여 상품, 자본, 임금, 기술 등 이주노동을 야기하는 제반 사회적 현상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화는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전지구적으로 발생시켜, 노동의 국제적 이동을 더 극심하게 만들 것이라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세계화로 발생한 국가들 사

이의 소득격차의 확대, 노동력의 공급 압력,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혁신 등으로 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미등록상태에서 고통을 받게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의 활동가들에게는 이론적 무장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워낙 바쁜 일정에 쫓기다보면 이론을 정립할 기회가 부족한데, 이 ‘국경없는 노동자’의 출간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책은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최수연 씨는 이 책이 이주노동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책의 출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정성에 감동을 받아 현장에서 직접 이주노동자교육을 하는 최서연교무님(서울 원불교외국인센터 소장)과 영국에서 이민학을 전공한 채윤하님(외노협 자원 활동가)이 원고교정을 해 주셨고, 김지명 님(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자원활동가회장)이 도표를 그려주었고, 그리고 부족한 출판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잘 알아 여신학자협의회 장민혜님이 출판 편집을 담당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이 책이 출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성들이 여러 활동가들과 관심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차례

서문 / 5

## 1. 세계화의 관점 / 7

- 1) 세계화란 무엇인가 / 7
- 2) 역사속의 세계화 / 8
- 3) 세계적인 인식 / 12
- 4) 현대 / 13
- 5) 국가의 쇠퇴 / 13
- 6) 결론 / 14

## 2. 통합과 분산 / 15

- 1) 통합의 첫 시기 - 유럽이 따라잡다 / 15
- 2) 통합의 두 번째 시기 - 유럽에서 장벽이 무너지다. / 17
- 3) OECD 국가와 그 외의 세계사이의 분산 / 19
- 4) 결론 / 20

## 3. 이주의 새로운 시대 / 21

- 1) 임금의 불균형 / 21
- 2) 현대이주의 유형들 / 26
- 3) 결론 / 32

## 4. 사람대신 상품의 수출 / 33

- 1) 현실세계 / 33
- 2) 새롭고 새로운 경제질서 / 34
- 3) 산업국가에서 무역이 고용전반에 미치는 영향 / 35
- 4) 무역이 산업국의 이민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 37
- 5) 자유무역이 이주수출에 미치는 영향 / 42
- 6) 이민자들을 고국에 머무르게 하는 수출지향 성장 / 46
- 7) 산업국가의 수출과 이민사이의 관계 / 49
- 8) 결론 / 50

## 5. 자본에게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에게 자본을 / 52

- 1) 지분과 부채 / 53
- 2) 외국인 직접투자 / 56

3) 수출전진기지 / 60

4) 결론 / 63

## 6. 이주를 통한 국제임금격차의 감소 / 64

- 1) 이주가 송출국에 미치는 영향 / 64
- 2) 이민이 수입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71
- 3) 이민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76
- 4) 결론 / 77

## 7. 새로운 충격 / 78

- 1) 정치적인 혼란 / 79
- 2) 경제적인 혼란 / 82
- 3) 사회적인 혼란 / 84
- 4) 이주의 포물선 / 86
- 5) 결론 / 87

## 8. 국제적인 기술의 교류 / 88

- 1) 두뇌의 유출 / 88
- 2) 교육의 세계화 / 89
- 3) 초국적인 고용주 / 89
- 4) 귀환 / 91
- 5) 새로운 기술의 교환 / 92
- 6) 결론 / 93

## 9. 이동의 가속화 / 94

- 1) 미디어로부터의 메시지 / 94
- 2) 교통과 통신 / 95
- 3) 이주자들의 네트워크 / 96
- 4) 이주산업 / 97
- 5) 결론 / 102

## 10. 이민에 대한 수요 / 103

- 1) 이중노동시장의 지속 / 104
- 2) 인구적인 요소 / 107
- 3) 결론 / 108

## 11. 시간의 문제 / 109

# 서문

Werner Sengenberger (ILO 고용전략부 국장)

세계화에 의하여 제기된 많은 문제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세계화가 국경을 넘어서 노동자의 이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와 현존하는 노동 제도가 그들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21세기에는 노동이동이 더욱 큰 규모로 이루어지리라고 대부분 예견하는데, 이는 이민규제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이 아니라 증가하는 노동력의 공급 압력, 세계화 자체에 의해서 발생한 한 국가내의, 그리고 국가들 사이의 소득격차의 확대,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제약이 없이 이주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으므로 더 많은 이주자들이 미등록 상태에 처하게 되며,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노동제도는 세계를 떠도는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인 보호나 안전을 제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이 책은 자본과 상품시장의 거대한 통합으로 인해 한 국가내의 집단들 사이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소득의 불평등이 줄었는지 아니면 더욱 확대되었는지에 대하여 ILO와 다른 여러 단체들의 연구의 결론을 함께 모아 놓았다. 빈곤을 해소하면 사람들이 이주하지 않게 될 것인지, 그리고 더욱 통합된 세계경제 속에서 가난한 나라는 이주로 인해 노동시장이 영향을 받아 도움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침해 받는지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무척이나 변화가 심한 자본시장 속에서도 국제사회는 성장을 지속 하려하기에 이는 시기 적절한 논제이다.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일어난 최근의 금융위기는 사회적 경제적인 성취가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얼마나 빨리 사라질 수 있는지, 또 결국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이 책은 이제까지의 증거로 보아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세계도처에서 이주를 해야만 하는 압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울한 결론을 제시한다. 피터 스타커는 세계화로 나아가는 과정이 현대화와 자본의 발달이라는 파행적인 영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마다 다르기는 해도 “일반적인 영향은 경제안정의 위기이다”는 점이다. 사실 세계시장의 통합은 전 세계의 자본의 이동이 조화로워지거나 저개발 국가의 무역이 더 증대하도록 이끌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는 이미 발전된 국가나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자본의 흐름을 집중시켰다. 1990년대 초기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3분의 2 이상이 십여 개국에도 채 못 미치는 국가에게 돌아갔다. 이들 국가들은 또한 개발도상국 전체 수출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선진국조차도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약해져서 최소한의 법적 기준치와 사회안전을 보장 받기가 점점 더 어려 있음을 발견하였다.

ILO는 특히 “세계화와 국제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사회적 측면을 연구하는 모임”의 후원으로 세계화의 사회적인 측면을 검토하는데 전면적인 노력을 하여왔다. 이 책은 21세기에는 더욱 증가될 노동력 이동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제까지 다루지 못했던 문제의 결함을 메우고 있다. 노동의 이주에 대한 전망과 국제사회를 위해 제기 될 문제들을 우리에게 경고해줌으로서, 이 책이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미래의 이주체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가를 밝혀주며, 한편 이주로 인해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긍정적인 역할이 더 증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를 희망한다.

# 1. 세계화의 관점

현저히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물을 더욱 깊이 더욱 폭넓게 통찰하여 볼수록, 각 부분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된다... 눈길이 닿는 곳에 있는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은, 전 세계는 서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를 숙고해 보는 한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그것은 전체로서, 하나의 개체 안에서 살피는 것이다.

— Pierre Teilhard de Chardin —

세계화는 오랫동안 매혹적인 대안이였다. 철학자들과 정치가들은 보편적이며 평화롭게 통합된 세계를 오랫동안 꿈꾸어 왔다. 확실히 이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흠없이 웹과 네트워크로 결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컴퓨터는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연결되고, 칠레의 사과가 유럽으로 보내지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되는 금과 포도주는 전 세계에 공급되고 있다. 동시에 매일 수 천억 달러가 런던, 뉴욕, 도쿄에 있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에서 순식간에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수 천명의 사람들과 브랜드명을 전 세계가 즉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엄청난 문화와 상업적인 이미지가 고루 퍼져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움직임과는 놀랄 만큼 관계가 없다.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국제주의의 문제를 거의 논하고 있지도 않고, 설사 논의한다고 해도 부차적인 뒤공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상대적 규모의 문제일 수 있다. 무역과 금융은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규모로 움직이고 있다. 1996년에 세계적인 상품의 수출은 전 세계 GDP의 29%가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은 국내 총 투자량의 6% 가량에 달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노동의 이주는 훨씬 제한적이며, 단지 1억2천만명 정도에 지나지 않아 세계인구의 2.3%에 달한다.

그러나 이주, 또는 이에 대한 공포는 세계화의 다른 측면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많은 국제적인 논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고 세계화의 다른 측면과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어느 정도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 1) 세계화란 무엇인가?

우리가 환영하건 두려워하건 세계화는 무언가 새롭고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그리고 인간이 통제 할 수 없는 것이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몇 세기 간에 지속되어 온 과정 중에서 단지 가장 최근의 것일

뿐, 가장 극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외떨어져 있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의 깊은 선택의 결과이다. 이는 세계경제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의 규모와 성격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대하는 것은 중요하다.

첫 번째 취할 논리적인 과제는 “세계화”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란 명제가 많은 다른 과정에 적용되어 그 의미가 점차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가장 약한 의미로 세계화는 단순히 세계 스포츠로서 축구의 출현에서부터 세계 종교로서 이슬람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하나 이상의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많은 수의 사건을 의미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각 국가내의 유사성이나 동등성 이상의 어떤 것을 의미하여야 한다 -즉 이러한 사건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별개의 국가 사이에서 연계와 이동이 꾸준히 강화되거나 증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국제화”일 뿐이다. 엄격한 면에서 세계화는 국제화이상의 것이다. 더 높은 단계의 조직화를 의미한다. 별개의 국가가 해체되어 모든 주요한 정치, 경제적인 결정이 궁극적으로 세계로 전파되는 상태이다. 이 새로운 세계는 “지리상의 종말” 그리고 특히 독립국가의 소멸에 직면한다.

실제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더욱 느슨하게 사용된다. 거의 모든 국제적인 과정은 세계화의 한 측면으로 생각된다. 첨가하여 이 포괄적인 용어는 근본적으로 국내의 많은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는 명백히 국가의 통제아래에 있는, 예를 들어 사유화와 같은, 경제자유화의 많은 측면들을 포함한다.

이 모든 것과 이데올로기적인 일련의 열변이 섞여 있다. 세계화는 묘사와 규범이라는 두 개의 개념 안에 새겨져 있다. 묘사란 그 어느 때 보다도 무역과 재정의 흐름에 의하여 밀접하게 연결된 세계에 관한 것이다. 규범은 세계는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 -이러한 발전이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역사 속의 세계화

널리 퍼진 국제 무역이라는 의미에서 세계화는 지난 십여년간의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상업의 국제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 사업체는 최소한 500년간 국경을 넘어서 작용하여 왔다. 예를 들어 유럽의 중세에, 수많은 무역상들이 대륙을 건너 도시에 사무소와 대표국을 설치하였다. 예를 들어 독일 한자동맹(German Hanseatic League)의 상인들은 무수한 이권을 쌓았다. 그들은 폴란드의 농업 발전, 스웨덴의 철강 생산, 그리고 벨기에의 일반 산업의 발전을 도왔다. 14세기에 메디치가는 유럽전역에 흩어진 무역국과 은행과 함께 세계최초의 다국적 은행중의 하나를 설립하였다. 그 후 15세기에 동인도회사나 허드슨베이 컴퍼니와 같은 기업들이 이와 같은 개념을 넓혀 대영제국과 함께 활동을 확장시키고 현대의 초국적기업의 창시자가 되었다.

사업의 국제화는 또한 산업혁명으로 인해 많은 성장을 한다. 산업화된 국가들은 원자재와 식량을 위하여, 생산품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위하여 외국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막대한 투자를 하였다. 세계1차대전이 발생한 즈음 외국인 직접투자는 약 140억\$에 달했다고 추산된다. 1930년대에는 침체기였으나 초국적기업의 성장은 2차대전후에 다시 도약하였는데 처음에는 미국기업에 의하여 촉진되었고 후에는 일본과 유럽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초국적 투자의 역사적인 성장은 무역의 유사한 성장과 함께 이루어졌다. 1870년과 1913년 사이에 국제무역은 일년에 3.4%가량 확대되었다. 1913년에서 1950년 사이에 전쟁이나 다양한 무역제재에 의하여 장기간의 정체가 있었는데 그 기간에 성장은 연 1%로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1950년과 1973년 사이에 회복되어 무역의 성장은 해마다 9% 이상을 웃돌게 된다.

투자와 무역의 국제화와 더불어 사람들의 중요한 이동이 있었다. 가장 잔혹한 이동은 노예무역에 기인한다. 1850년 이전에 1,500만 가량의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미대륙으로 이송되었고, 노예제 폐기 후 100여년간은 3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민노역자로 이동하였다. 반면에 수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여행하였다. 1846년에서 1939년 사이에 약 5천9백만의 사람들이 유럽을 떠나 대부분 미대륙으로 향했고 그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떠났다.

### 자본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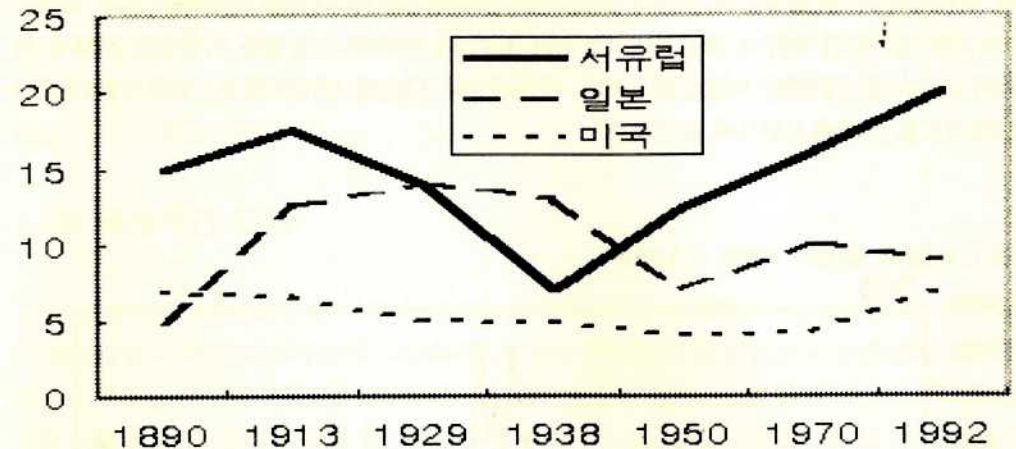
상품과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주하였던 역사로 미루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오늘날의 세계가 국제화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의심스럽다. 사실상 세계는 전 시대에 그 어느 때 보다도 훨씬 "세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본의 흐름을 생각 해보면 더욱 명백하다. GDP에 대한 국가경상수지의 비율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의 개방성을 측정한 1980년대 한 논문은 유럽과 북미의 상당한 국가들이 일세기 이전보다 더 개방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6개의 주요국가 (영국, 이태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은 자본의 움직임에 있어서 상대적인 쇠퇴를 보여준다.

세계통합의 또 다른 측면은 통화와 증권의 무역 -그리고 한 자본의 중심지와 다른 지역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는 것이다. 최근에 외환달러가 경제적인 쇠퇴나 이율의 변화에 반응하여 전 세계로 자본을 손쉽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결과 조직적인 붕괴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전 세계의 이자율이 서로 얽혀있다는 면에서 별개의 국가사이에 단기이자율이 최대로 얽혀있는 시대는 1879년부터 1914년 사이의 금본위제시기였다는 조사가 상당수 있다. 다국적인 증권거래의 양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장이 오늘날보다 사실상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더욱 통합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 무역의 관점

또한 무역에 있어서도 전 시대보다 현재가 더 중요한 것 같지 않다. 도표1.1은 GDP에 대한 상품수출의 비율을 보여준다. 서유럽의 비율이 미국에 비해 꾸준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 표 : 1.1 GDP에 대한 비율로 본 상품수출, 1980 - 1992



출 처 : Bairoch, P., 1996.  
각 주 : 자료는 1950년을 제외하고 평균3년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작은 국가들이 큰 국가보다 대외무역에 더욱 의존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래도 이러한 기준으로 보아 경제가 크건 작건 금세기 초보다는 약간 더 무역에 대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이러한 집계는 GDP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점은 명확한 패러독스를 설명 해준다. 오늘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직, 특히 공공 분야에 근무하고 있다. 이는 자체가 GDP에 대한 무역의 비율을 저하할 수 있으며 무역량의 성장을 감출 수 있다. 다른 요인은 수출, 특히 가격 구성의 변화일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20세기 초 무역의 3분의 1 이하가 생활용품이라기보다 제조용품이었으나 현재에는 그 비율이 75%가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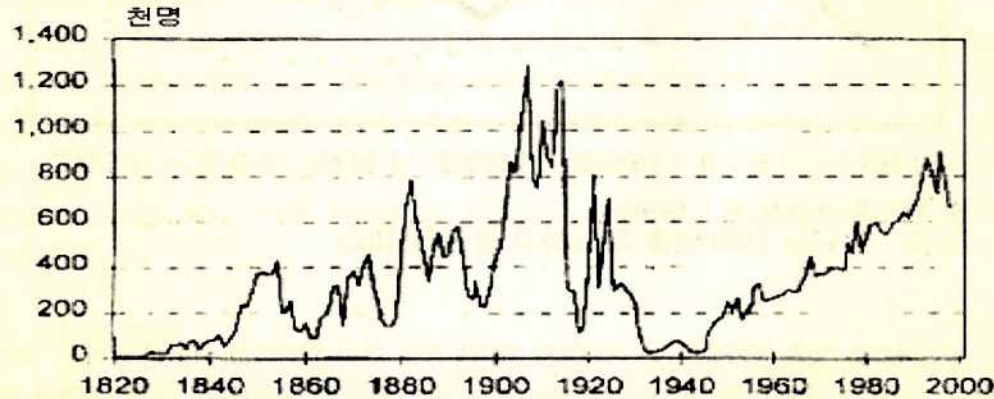
위 도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일본의 위치로 2차대전보다 덜 무역의존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에서 상품은 가격의 측면에서 측정되어졌다는 것을 다시 지적하여야겠다. 이는 상대적인 중요성이 수출과 국내소비 사이의 상대적인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의 수출량은 상승한 반면 수출 가격은 내수소비에 비례하여 떨어졌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경제는 그 이전에 비해서 오늘날 더욱 극적으로 개방이 됐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 이주의 관점

사람들의 국제적인 이동에 관해서도 유사한 경고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수

의 국제이주자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상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이동은 1815년 이후 백여년간 이루어졌다. 이는 이주를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인 미국을 보면 잘 나타난다. 오늘날 이민자의 수가 많다고 여겨지나 도표1.2는 금세기 초보다 사실상 줄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받아들인 인구에 비교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미미하다. 정점을 이루었던 1914년 이민자의 수는 총 120만명 이었는데, 이는 미국인구의 1.5%에 해당되었다. 한편 1996년에는 911,000명으로 인구의 0.35%에 불과하다.

도표 1.2 미국 이민, 1820 - 1998



출처 :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various years

표 1.1 지역별로 본 세계 이주자 총계, 1965 - 1990

	천명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			
	1965	1975	1985	1990	1965	1975	1985	1990
전세계	75,214	84,494	105,194	119,761	2.3	2.1	2.2	2.3
산업국가	30,401	38,317	47,991	54,231	3.1	3.5	4.1	4.5
개발도상국	44,813	46,177	57,203	65,530	1.9	1.6	1.6	1.6
아프리카	7,952	11,178	12,527	15,631	2.5	2.7	2.3	2.5
아시아	31,429	29,662	38,731	43,018	1.7	1.3	1.4	1.4
중남미/카리브	5,907	5,788	6,410	7,475	2.4	1.8	1.6	1.7
북미	12,695	15,042	20,460	23,895	6.0	6.3	7.8	8.6
유럽/구소련	14,728	19,504	22,959	25,068	2.2	2.7	3.0	3.2
오세아니아	2,502	3,319	4,106	4,675	14.4	15.6	16.9	17.8

출처 : Zlotnik, H, 1998

국가인구조사에 의거한 최근 세계이주자료가 표 1.1에서 보여진다.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이 자료는 외국에서 태어난 (그래서 후에 새로운 나라의 국민이 된) 인구를, 그리고 나머지 국가는 대개 비시민권자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난민도 포함한다. 이 표가 나타내는 것처럼, 전체 세계 이주자는 1965년과 1990년 사이에 7천5백만에서 1억2천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커다란 증가 -매년 1.9%-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같은 기간동안 1.8%인 세계 평균 인구성장률을 약간 웃돌 뿐이다.

### 3) 세계적인 인식

기본적인 자료로 보아 이 세계가 금세기 초에 비해 더 국제화되지 않았다면 왜 세상이 더욱 세계화된 것처럼 여겨지는가? 그 하나의 이유는 세계화의 많은 지표가 최근 몇 년간 증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세계화의 "냉혹한" 과정은 역사적으로 보아 반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최근 경향에 근거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이동이 단지 양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격에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초 국적기업이 -빠른 통신과 저렴한 교통에 의하여- 부품생산을 많은 생산 기지에 분산하여 이룩한 훨씬 더 깊은 통합에서 볼 수 있다. 1990년 1마일 당 항공료는 1930년 수준의 20%이하이고 1930년과 1996년 사이 런던과 뉴욕 사이의 3분간 전화 통화료는 300\$에서 1\$로 떨어졌다.

국제이주의 성격 또한 변화하였다. 이주자는 이곳 저곳을 훨씬 더 빨리 더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지구의 반대편에 있더라도 고국과 지속적으로 연락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동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민을 떠난 사람과 이민 온 사람의 비율, 그리고 송금의 양을 고려하며 152개 국가의 현행 양식을 살펴보고 있다. 1970년에서 1990년 사이에 주요 수입국가의 수가 39에서 67개국으로 늘어났고, 송출국가는 29개국에서 55개국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가장 재미있는 결론 중의 하나는 송출국이면서 동시에 수입국인 나라의 수가 4개에서 15개국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발전은 우리가 이 세계를 보는 시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화에 관해 저명한 한 사회학자가 말한 바와 같이 "세계화란 이 세상의 축소와 전체로서의 세상에 대한 자각이 강화되는 것" 둘 다를 의미한다. 다시, 이것조차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세계자본주의에 대한 마시스트 분석에서부터 "세계체계이론"이라는 최신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보편적인" 이론상의 틀이 국제관계에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 또는 문화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실체-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세계화의 핵심은 이러한 실체 사이의 장벽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세계적인 자각이라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 4) 현대

이러한 자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다른 체제들의 융합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단지 현대화 과정이 확장되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신의 통신기술은 역법과 도표화가 더욱 발전한 것이다. 이들은 광범위한 일치와 동시성화를 허용하는 보편적인 시간과 날짜를 확립하는 기초였다. 시간과 공간은 그리하여 조작의 대상이 되었다. 삶의 많은 다른 측면들은 획일적이고 교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졌는데 특히 현금에서 신용카드에 이르는 세계적인 금융거래 미디어가 그러하다.

반면 어떤 이들은 세계적 자각이 나타난 것은 이 세계에서 가장 외진 곳이 한개의 단일한 반영적인 기구로 통합되는 것이기보다는 자유자본주의와 그것이 발전시킨 기술이라는 특정 삶의 방식이 퍼지고 지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대화는 많은 체제들이 하나의 거대한 종합체로 통합되기보다는 하나의 널리 퍼져있는 단일한 체제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쓸어 없애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마도 이는 "문화제국주의"의 효력에 너무나 많은 무게를 주고 많은 다른 문화의 탄력성과 깊은 침투를 거부하고 자신에 맞게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일 수 있다. 가장 신중한 고도의 저항은 회교근본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때로 민주화와 현대화 모두를 반대한다. 그러나 많은 신흥아시아국가들도 그들이 취하기를 원하는 서구문화의 측면에 관하여 상당히 선택적이다. 이들 국가들은 그들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의 역량 덕분에 빠른 성장을 하였다고 이야기한다. 서구와 같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서구와 다르게 남아 있기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이러한 가족관계에 근거를 둔 가치체계가 몰락의 원인이 되었으리라는 추정과 함께 위의 이론에 몇 가지 의문을 던진다.

#### 5) 국가의 쇠퇴

역사를 통하여 세계화의 상업적인 측면은 국가의 성장 -그리고 몰락과 밀접히 연관되어 왔다. 초기에 민족국가의 출현은 국가의 정체성과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시키도록 도와준 현대의 미디어와 균등한 교육 체계에 무척 의지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화라는 현대의 시기는 국가의 권위와 국경의 중요성을 쇠퇴시키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쇠퇴는 신중한 선택의 문제이다. 국가 정체성의 수호자인 정부는 그 전에는 자신만의 고유한 특권으로 여겼던 것에서 물러나 여러 형태의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없애고 전에는 국영기업의 영역에 있었던 많은 활동을 사적인 분야로 넘기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눈에 띄게 자유무역을 장려하고 자본의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여 국경의 중요성을 줄이는 결정을 만들고 있다.

국가의 후퇴는 국내,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사기업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공산주의의 몰락과 자유민주주의의 원리가 더욱 전파되어 가속화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들의 이념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건 거의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는 신중히 중요성을 줄여 나가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통치와 규제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현재 국가정부에 의하여 양도된 기능의 일부를 이어 받을 국제기구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모든 변화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차라리 지방분권화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들, 그리고 국가의 일부는 국경이라기보다는 생산과 시장이라는 논리에 따라 재편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의 일부는 북이탈리아, 부산 또는 (GNP가 미국과 독일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3번째를 점하는) 일본의 슈코덴지역과 같이 사실상 국경 안에 위치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다른 지역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조호르,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리아우섬으로 이루어진 그로스 트라이앵글과 같이 여러 국경을 걸쳐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지역은 자연적인 경제특구를 형성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발전은 극적인 기술의 발전 -특히 디지털 통신의 확산으로 다시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가장 억압적인 정권도 제어할 수 없는 정보와 비판의 흐름에 의하여 침식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통제 -또는 세금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과 부가 사이버스페이스 주위에 움직이고 있다.

#### 6) 결론

세계화는 오랜 역사과정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최근의 형태로서 더욱 실제적으로 보여진다. 사회학자인 로랜드 로버트슨은 세계화를 몇 개의 광대한 시기로 분류한다. 그는 현재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속을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

세계화는 획일적이고 멈출 수 없는 불가항력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 연결된 여러 과정이 복잡하게 얽힌 것이다. 이들 과정의 일부는 다른 것보다 더 강력한 통제의 지배를 받는다. 이들 중에서 국제이주는 가장 중재를 만들어내기 쉬운 것이다. 정부는 현재 무역과 재정의 이동을 막으려고 하지 않으나 사람의 이동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하려 한다.

그러나 왜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론상으로 세계화는 점차적으로 국가간의 경제를 더욱 평등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세계를 떠돌지 않아도 되리라고 한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통합된 상태"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겠다.

## 2 통합과 분산

신고전주의경제이론에 의하면, 세계화의 한 영향은 “요소가격균등화(factor price equalization)”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 사람, 그리고 자본은 국가들간의 가격을 균등화하여야 한다. 노동력은 저임금에서 고임금으로 이동하며, 자본은 그 반대로 이동한다. 이는 이주자들의 목적지인 나라의 임금을 억제하는 한편, 송출하는 나라의 임금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 궁극적으로, 남은 임금의 차이가 단지 두 나라사이의 이주비용을 의미할 때 어떤 형태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주는 멈추어 질 것이다. 이러한 균등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현재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비록 자본과 상품은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노동력은 그렇지 못하다. 오늘날 모든 나라들이 국경을 매우 엄하게 통제하여 많은 사람들이 새로 유입이 되는 것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적어도 시도라도 하고 있다.

과거에는 매우 달랐다. 수 백년동안 사람들은 여권이나 비자 없이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주가 국제 임금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기록을 조사해 보는 것이 쉽다. 경제사가인 제프리 윌리엄슨은 과거 150년간 15개국의 자료를 검토하여 이 일을 해냈다. 신대륙에서는 호주, 아르헨티나, 캐나다와 미국이, 구대륙에서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아일랜드,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과 스웨덴이 이들 국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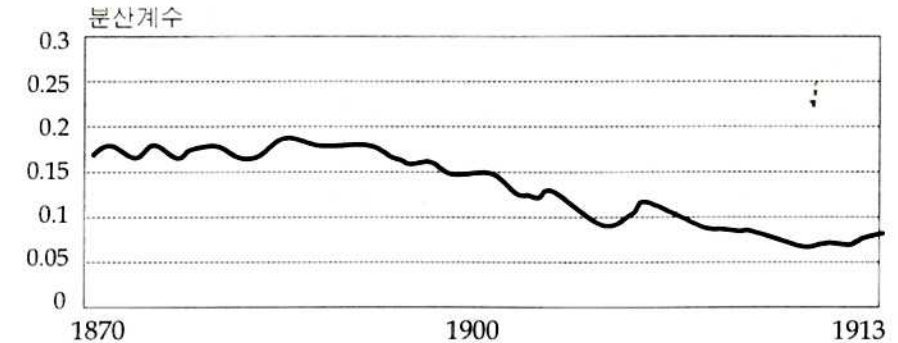
### 1) 통합의 첫 시기 - 유럽이 따라 잡다.

이 자료는 통합이 별개의 두 시기에 일어났음을 지적한다. 첫 시기는 1870년에서 1913년이고, 통합의 과정은 도표2.1에 나타나있다. 이는 그 나라의 생활비에 맞추어 도시의 미숙련 노동 임금의 변화를 나타낸다. 나라마다 임금이 어느 정도까지 다른지는 “분산계수(coefficient of dispersion)”에 의하여 표현된다. 나아가 도표 2.1이 나타나는 바와 같이 1870년에서 1900년경까지 계수가 0.24에서 0.14로 거의 절반으로 줄면서 꾸준히 통합의 과정이 일어나는 경향이다.

통합의 대부분은 유럽의 임금이 아메리카대륙의 임금을 따라잡고 있음을 나타내며, 아르헨티나와 캐나다의 임금은 호주와 미국을 따라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미국은 대부분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앞서, 1900년에 미국의 실질임금은 영국보다 62% 높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 상당한 통합이 일어나고 있었다. 스웨덴에서 1854년의 실질임금은 영국의 단지 48%였으나 1913년에는 동등해졌다. 아일랜드도 같은 기간동안 상당히 발전을 이루어 비율이 60%에서 92%로 올랐다. 반면 북유럽의 부유한 국가와 남유럽의 가난한 국가 사이의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다.

무엇이 이런 통합을 만들어 냈는가? 이것이 상대적으로 개방된 시기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세계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자유무역의 시기였고 통화는 금본위제와

도표 2.1 세계실질 임금율의 분산, 1870-1913



결부되어 있었다. 이주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와 1846년과 1924년 사이에 약 5천만명의 유럽인들이 전통적 인력수입국인 북미와 호주로 이주하였다.

윌리엄슨은 무역과 이주가 주요 요인이었다고 결론짓는다. 무역이라는 요인은 대개 북미와 유럽 사이의 교통비가 급격히 하락한 결과였다. 이는 유럽에서의 생필품 가격을 극적으로 낮추어 놓았다. 그리하여 1870년에 시카고보다 60% 높았던 리버풀의 곡물가격이 1912에는 단지 15%만이 높았다. 그리고 소고기에서 석탄, 구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다른 일용품도 실제적인 가격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유럽국가 내에서 생활비는 떨어지고 실질 임금은 상승하였다. 윌리엄슨은 특별히 영국과 미국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1870년에서 1895년 사이에 생필품가격의 통합이 양국사이의 실질 임금의 격차를 3분의 1이상 줄인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그가 확인한 두 번째 요인은 대량의 이주이다. 요소가격균등화라는 신고전주의 모델에 따르면 이것이 미국의 실질임금을 억누르고 유럽에서는 상승을 시켰을 것이다. 반면 이민이 임금에 끼친 영향은 복잡하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의 도착은 확실히 노동력의 규모를 증대하였지만, 또한 고용도 창출시켰다. 그 한가지 이유는 이민자들이 수요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공급 그 자체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추가적 주택, 식품, 그리고 기간시설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이다. 다른 이유로는 그들 자체가 새로운 자본을 끌어내 고용을 확대시키는 새롭고 강력한 노동집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확실히 이 시기에 발생하였다. 자본은 노동을 뒤쫓고 있었다. 19세기에 대부분의 자본은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흐르며 미대륙에서 이익을 취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래서 이민은 임금을 억압하리라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않다. 사실, 현대의 몇 가지 연구는 1880년대에 미국의 실질임금이 사실상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민이 이 기간동안의 임금성장을 저지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민이 이루어진 시기와 1920년대의 이주제한기간 사이의 임금 성장을 비교한 다른 학자들은 비록 실질임금이 초기에는 떨어지지 않았으나 확실히 더 느리게 성장하였다고 한다. 윌리엄슨도 동의한다. 그는 수리화 할 수 있는 일반균형모델(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사용하여, 사실 이주가 임금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자본의 이동을 참작하면서, 대량의 이민이 없었으면

1910년의 도시실질임금은 9% 더 높았으리라고 결론 맺는다.

한편 이에 상응하여 송출국가에서는 임금이 상승하였을 것이다. 이주송출은 과다한 노동력을 흡수하여,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음이 틀림이 없다. 여러 나라에서 상당한 비율의 인구가 송출되었다. 예를 들어 1846년과 1924년 사이에 스웨덴 인구의 22%, 영국제도의 인구의 41%가 이주하였다. 사실 평균적으로 이 기간 동안 유럽에서 인구의 12.3%가 송출되었다. 이러한 규모의 송출은 임금에 영향을 주었음에 틀림이 없고, 사실 스웨덴과 아일랜드에는 상당한 임금인상이 있었다.

물론 임금이 왜 상승하였는지는 이주송출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 하나는 새로운 기술이다. 선진국에서 발전이 덜 된 나라로의 기술의 전파는 교육수준의 향상이 그랬던 것처럼 생산성의 향상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반면 19세기말에 대부분의 산업기술이 널리 알려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별히 교육받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윌리엄슨의 종합적인 결론은 1870년에서 1910년 사이 실질임금 통합의 약 70%가량이 대량이주 때문이고, 그 나머지는 무역과 같은 다른 요인 때문이라고 한다.

1차세계대전은 무역과 투자 뿐 아니라 이주에 있어서도 이러한 통합의 시기를 멈추게 하였다. 전쟁 전 국제여행은 상대적으로 제한이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여권 없이 유럽 전역을, 때로는 다른 대륙을 자유롭게 이동하였다. 그리고 만일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고 싶을 때 관료적인 장애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제한은 꾸준히, 특히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전쟁 후 이민은 매우 어려워졌다. 매년 백만 이상을 달하던 이민자는 162,000명 가량으로 줄었다. 이러한 “반세계화(degrobalization)”의 과정은 실질임금률의 분산을 동반하였다. 분산계수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차대전 말경은 2.0까지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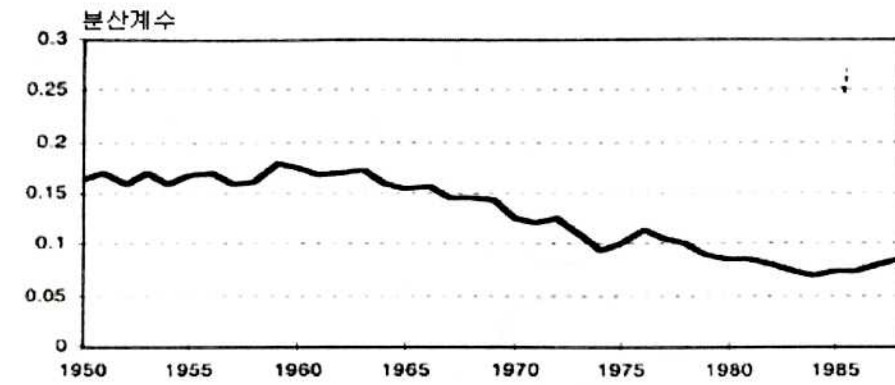
## 2) 통합의 두번째 시기 - 유럽에서 장벽이 무너지다.

통합의 두 번째 주요시기는 도표 2.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1960년대 초기부터 발생하였다. 이는 두 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유럽이 신대륙을 따라잡고 있다는 것이다. 1960년에 서독의 실질임금은 미국의 39%에 불과하였으나 1988년에는 89%로 상승하였다. 유사하게 덴마크도 그 비율은 54%에서 100%로 상승하였다. 동시에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가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따라잡아 유럽 내에서의 통합도 상당히 이루어졌다.

두 번째 기간동안 무엇이 이러한 통합을 만들어 냈는가? 상황은 확실히 매우 다르다.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이주는 상당히 줄었다. 1901년에서 1910년까지 10년간 8백만명 이상의 유럽인이 북미로 떠났다. 그러나 1961년에서 1970년 사이에는 이러한 이동은 백십만명으로 줄고 1981년에서 1990년 사이에는 80만으로 줄었다. 일부국가에서는 극적으로 하락하여 통합의 기간동안에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1951년에서 1960년 사이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떠난 수가 50만 이상이었으나 1981년에서 1990년 사이에는 91,000명으로 줄었다.

그리하여 통합은 이주송출과 그다지 관계가 없었다. 오히려 이는 유럽의 경제성장의 결과이다. 유럽공동체의 국가에서 1960년대에 일인당 GDP는 매년 평균 4.8%로 성장하였는데, 이

도표 2.2 국제 실질 임금율의 분산, 1946 - 1988



출처 : Williamson, J., 1995

에 비해 북미는 3.0% 성장하였다. 그리고 비록 그 후 몇 십년간은 성장이 둔화하였으나 여전히 북미보다는 유럽의 성장이 더 빨랐다. 같은 기간동안 임금 또한 통합이 되었다. 1970년에서 1991년 사이 실질임금이 유럽공동체는 50%이상 성장하였으나 미국은 단지 10%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 실업의 증가에 대한 상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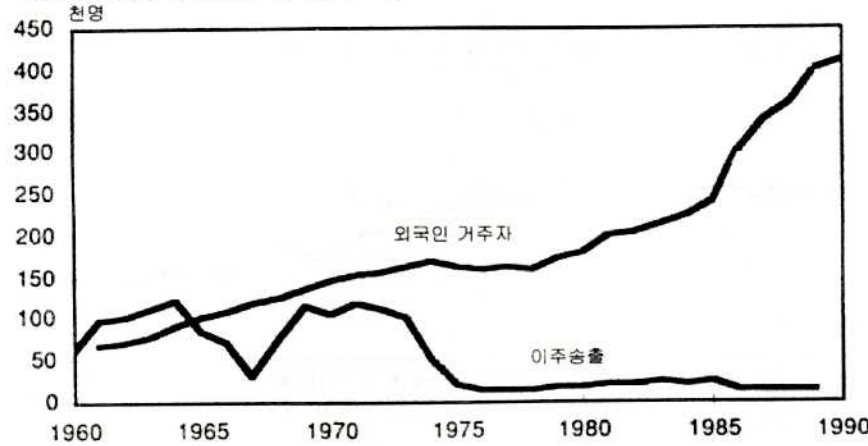
유럽이 전체적으로 따라잡을 동안, 유럽 내에서도 상당한 통합이 이루어졌다. 특히 국경을 넘어선 투자와 무역이 불균형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어 유럽공동체의 국가 사이에서의 통합도 또한 상당히 있었다. 1960년에서 1992년 사이에 EC 창립국가 사이의 무역은 전체무역의 35%에서 60%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무역의 성장은 훨씬 막대한 크기의 경제통합을 가져왔다. 이에 더하여 EC는 불균형을 해소할 다양한 국가자금과 여러 다른 자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발전은 유럽국가 사이 이주자의 이동에 영향을 주었다. 1950년대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와 같은 남부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연방공화국과 같은 부유한 나라로 많은 수의 노동자를 송출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진행되고 모든 국가들이 더 부유하게 되자 EC의 많은 회원국 국민들이 다른 회원국에서 일하기가 쉬워졌지만, 유럽 내에서의 이주는 둔화되었다. 이는 안도가 되는 것이다. 1960년대에 이탈리아인들이 “홍수”처럼 부유한 국가로 몰려들리라는 공포가 있었다. 대신에 더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고국에 머무르기 시작했다. 1966년에서 1970년 사이에 이탈리아에서 250,000명이 국외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1976년에서 1980년 사이에 그러한 이동은 반대로 되기 시작하였다.

사실상 유럽은 전체적으로 인력의 순수입국이 되어 북아프리카, 동유럽 그리고 터키와 같은 나라에서 노동자들을 끌어들이었다.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같이 인력을 송출하였던 나라들은 이제 순수입국이 되었다. 도표 2.3은 스페인의 이러한 과정을 보여준다.

1969년에서 1973년까지 매년 100,000명 이상이 이주하였으나, 1974년 이후부터는 극적으로 감소하여 일년에 20,000명 가량으로 안정된다. 이 표에 1990년대 초 약 300,000명 가량이었던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통계는 미등록거주자에 포함하지 않았다.

도표 2.3 스페인, 이주송출과 외국인 거주자, 1960 - 1990



출처: Blanco Fdez. de Valderrama, C., 1993

OECD 국가에 대한 자료는 모든 생산요소의 이동이 통합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대적인 기여도는 각각의 시기마다 다르다. 첫 시기에 주요 요소 중의 하나는 대량이주로, 일용품 무역과 함께 실질임금의 불균형을 없애도록 도와주었다. 두 번째 시기의 통합은 OECD 국가들 사이 이주를 하려는 동기를 줄이도록 해준 투자, 무역 그리고 경제발전의 결과이다.

### 3) OECD 국가와 그 외의 세계 사이의 분산

통합에 관해 위에 언급한 자료들 거의 모두는 산업국가들에 대한 것이다. 세계전체에 대해서는 그 모습이 매우 다르다. 여기에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에 상당한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1985년 달러 당 구매력의 환율비교(purchasing power parity)를 사용하여 분산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1870년에서 1960년 사이에 부유한 국가(미국)의 일인당 수입은 2,181\$에서 16,779\$로 증가하였다. 한편 같은 기간동안 에티오피아와 같은 최빈곤 국가들의 수입은 불과 250\$에서 325\$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둘 사이의 비율은 약 9:1에서 50:1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산은 계속되었다. 1960년에서 1990년 사이에 OECD 국가의 수입은 매년 평균 2.6% 가량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는 불과 1.8% 성장하였다. 이 30년 동안 가난한 국가에 비해 부유한 국가의 소득율은 45%가량 성장하였다.

UNDP도 비록 세계를 이와는 다르게 나누고 있지만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1996년의 인류발전보고서는 1960년에서 1991년 사이 전 세계의 상위 20%인 국가의 소득은 70%에서 85%로 성장한 반면, 최빈곤 국가의 비율은 2.3%에서 1.4%로 줄었다고 추산한다. 1993년경 23조\$의 세계 GDP 중에서, 18조\$이 산업국가에 있고 단지 5조\$만이 개발 도상국에 있었다.

만일 개발도상국들이 이러한 차이를 줄이려면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이 필요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1960년대와 같이 건강한 성장률을 보인 시기에도, 개발도상국 전체에 대한 일인당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불과 3.3%였다. 1970년대에 3.1%로 떨어졌고 1980년대에는 1.2%로 떨어졌다. 굉장한 예외도 있었다. 동아시아의 성장률은 1980년대에 평균 6.3%에 달했다. 그러나 낮은 출발점과 인상적이지 않은 성장률을 고려하면 개발도상국들은 전반적으로 훨씬 뒤쳐지고 있었다.

왜 OECD 국가들이 그 나머지 세계와는 분산되면서 자체 내에서 통합되는가? 이는 부분적으로 "세계화"라는 무척 협소한 기반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실 세계투자와 무역의 대부분이 산업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92년 1조9천억\$에 달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세계 총액 중에서 단지 4,200억\$(22%)만이 개발도상국에 있었다. 세계 무역수출의 대부분이 유럽, 북미, 일본에서 이루어져 무역의 이동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집중이 되어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세계경제에 아주 약하게 통합되는 한편, 동유럽과 소련의 중앙 통제 경제는 접촉이 더욱 적었다. 초기에 이는 그다지 불이익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1930년대를 되돌아보면, 소련은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었다. 사실상 소련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빨리 성장하였다. 1960년대까지 공산국가들은 중공업의 확장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서구보다 훨씬 빨리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60년대와 70년대에 중앙계획경제는 서구의 소비에 의해 추진된 경제에 뒤처지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빈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990년 경제개혁이 시작되기 전 실업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절대빈곤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런 형평의 정도는 경제 효율을 희생시켜 국영기업체는 많은 수의 불완전고용을 축적하게 되었다. 개혁 - 그리고 서구로의 개방은 형평을 희생시켜서라도 효율과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대신에 산출이 일년에 10% 이상으로까지 극적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 4) 결론

국가들은 상품, 자본, 또는 사람들의 이동의 결과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 과거에 사람들의 이동은 경제를 서로 더욱 밀접하게 움직이도록 도왔다 그러나 최근 이주에 대한 정치적인 저항은 이러한 과정을 억누르고 국제적인 불평등이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 이것이 이주를 멈추게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동의 형태와 방향을 변화시키고 있다. 다음 장에서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의 이주를 야기하는 소득잠재력(earning potential)의 현 불평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3. 이주의 새로운 시대

서방의 부유한 국가들과 많은 개도국들 사이의 경제의 분산은 임금에 있어서 심한 불균형을 만들었다. 그리고 많은 새로운 종류의 이주를 촉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주하거나, 모험심으로 이주를 하는 한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주된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벌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 1) 국제 임금의 불균형

나라들 사이의 소득잠재력의 차이를 평가하는 가장 있는 그대로의 방법은 일인당 평균 소득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미국과 멕시코사이의 국경은 두 나라간 소득의 차이가 가장 긴 국경이다. 일인당 GDP라는 측면에서, 양국사이의 비율은 6:1이다. 반면 격차가 가장 큰 국경은 아마도 독일과 폴란드일 것이다. 독일의 일인당 GDP는 미국과 거의 똑같으나 폴란드는 멕시코보다 훨씬 가난하여, 국경을 사이에 둔 소득의 비율은 11:1이다.

평균 GDP는 양국에서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또는 임금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주에 대한 가능성을 가장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주자에게 열려진 직업의 임금을 차이이다. 이러한 대조는 더욱 크거나 더 적을 것이다.

- 멕시코 - 미국 : 1996년에 미국에서 체포되어 추방된 465명의 멕시코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들은 멕시코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일로 일주일에 평균 31\$을 벌었던 것에 비해 미국에서는 278\$를 벌었다고 한다. 이는 9:1의 비율이다.
- 폴란드 - 독일 : 1996년 독일에 있는 폴란드 건축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7DM 가량이거나 폴란드에서는 2DM 가량을 벌게 된다.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1997년에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고국에서 하루에 0.28\$를 버는데 비해 이웃의 말레이시아에서는 2\$이상을 벌 수 있다.

더 많은 비교가 전 세계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을 보여주는 표 3.1에 나타나 있다. 산업국과 개도국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 외에도, 얼마나 한국과 싱가포르 같은 나라의 임금이 급속히 성장하여 가난한 이웃국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주하겠다는 결정은 임금의 격차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주자들은 새로운 국가에서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 불법으로 입국하였을 경우 추방될 가능

도식 3.1이주의 순 수익을 측정하는 법.  
고국을 떠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잠재적인 이주자의 의사결정과정을 다음과 같은 항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R(0) = \int_0^{\infty} [P_1(t)P_2(t)Y_d(t) - P_3(t)Y_0(t)]e^{-\nu t} dt - C(0)$$

ER(0) = 시간 0에 계산된 이주자의 예상 순 수익

t = 시간

P<sub>1</sub>(t) = 추방을 피할 확률(0부터1)

P<sub>2</sub>(t) = 도착한 나라에서 일자리를 구할 확률

Y<sub>d</sub>(t) = 도착한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은 후 소득

P<sub>3</sub>(t) = 고국에서 일자리를 구할 확률

ν =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참작하여 감산

C(0) = (정신적, 경제적) 이주경비

만약 ER(0)이 양수이면 이주는 합당하다.

이러한 항등식에 근거하면 이주에 영향을 주려는 정부는 소득, 상대적인 고용 확률, 그리고 이주경비에 영향을 주려 할 것이다

Source: Massey, D., et al. 1993

성, 심리적, 경제적인 이주의 비용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이주에 대한 보상"(도식3.1)을 표현하는 항등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멕시코와 미국 사이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빠르고 자유로운 정보의 교환이 있는 곳에서 이주자의 이동은 상대적인 임금율의 변화에 대해 매우 민감할 수 있다. 공공정책연구소에 의해 미국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는 1980년에서 1993년 사이 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로 이동한 미등록이민자를 조사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캘리포니아의 경제가 좋았을 때 이곳에서 일자리는 갑자기 증가하고 미등록이민도 정점을 이루었다. 한편 캘리포니아가 1990년대 초 심각한 불황을 겪게되자 미등록 이민은 줄었다. 이주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일자리가 있는지, 어디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멕시코-미국에 관한 1998년의 이주연구는 일자리를 찾으러 온 멕시코인의 95%가 이를 구했으며 평균적으로 한달 가량만이 걸렸다고 결론지었다.

이주결정은 또한 송출국가의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멕시코의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미등록이주는 증가하였다. 멕시코에서 실질임금이 10% 줄어들면 국경에서의 미등록 이주자 체포는 8% 성장하게 된다고 한 연구는 결론 짓는다.

언뜻 보면 도식3.1의 모델은 가장 높은 이주율이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19세기에 다른 대륙으로의 이주는 처음에는 영국, 그 다음에는 독일과 같이 부유한 나라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남유럽의 가난한 나라들은 나중에 가서야 송출하기 시작하였다. 사실상, 역사적으로 대규모 이민송출의 착수와 산업화의 시작 사이에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표 3.1 제조업계의 시간당 임금 (U.S.\$), 1980-1995

	1980	1985	1995
미국	9.87	13.01	17.20
캐나다	8.67	10.94	16.03
호주	8.47	8.20	14.40
뉴질랜드	5.33	4.47	10.11
유럽			
프랑스	8.94	5.72	19.34
독일	12.33	9.60	31.88
이탈리아	8.15	7.63	16.48
영국	7.56	6.27	13.77
오스트리아	8.88	7.58	25.33
벨기에	13.11	8.97	26.88
덴마크	10.83	8.13	24.19
핀란드	8.24	8.16	24.78
네덜란드	12.06	8.75	24.18
노르웨이	11.59	10.37	24.38
스페인	5.89	4.66	12.70
스웨덴	12.51	9.66	21.36
스위스	11.09	9.66	29.28
체코	자료 없음	자료 없음	1.30
헝가리	자료 없음	자료 없음	1.70
폴란드	자료 없음	자료 없음	2.09
러연방	자료 없음	자료 없음	0.60
아시아			
일본	5.52	6.34	23.66
싱가포르	1.49	2.47	7.28
홍콩	1.51	1.73	4.82
중국	0.25	0.19	0.25
대만	1.00	1.50	5.82
한국	0.96	1.23	7.40
말레이시아	0.73	1.08	1.59
태국	0.31	0.49	0.46
필리핀	0.53	0.64	0.71
인도네시아	0.16	0.22	0.30
인도	0.44	0.35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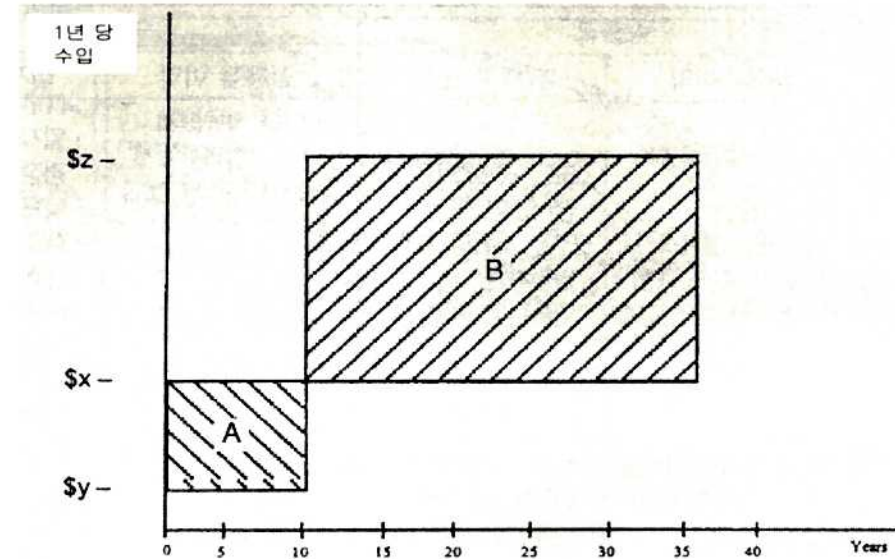
출처 : Morgan Stanley and Co. Inc., 1996

왜 그러한가? 일부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에 증대된 개인적인 부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생존의 필수품을 구하려고 고투하는 최빈국들은 이주하기를 원하지만 국제여행을 할 경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반면 수익이 약간 높아지면 가족들은 누군가를 외국으로 보낼 기본적인 비용을 모으거나 빌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송출계약 한 노동자의 90% 이상이 외국으로 가기 전에 고용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더 늘어나면 이주를 할 필요는 줄고 이주의 경제적, 사회적인 비용은 늘어나 본국에 남아 있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된다. 이주를 하는 것이 최빈국이 아니라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 푸에르토리코인의 미국이주 경우에도 명백하다. 교육을 받지 않은 푸에르토리코인의 극소수만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아마 이는 언어장벽과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모델이 더욱 암시하는 것은 송출국과 수입국 사이의 임금의 차이가 좁아지면 이주가 줄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불확실하다. 고용의 상황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 부유한 국가의 임금이 떨어지더라도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면 이주는 여전히 늘어날 것이다.

도표 3.1 장기적인 수입에 근거한 이주결정



출처 : Martin, P., and E. Midgley, 1994

경제적 이유로 촉발된 이주에 관해 이 모델이 잘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은 장기적인 소득에 대한 이주자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이주자들은 처음에는 적게 버는 나라로 이주를 선택할 수 있다. 필립 마틴은 도표 3.1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자국에서 일년에 30,000\$을 벌 수 있는 아일랜드의 변호사나 폴란드의 의사의 가능성을 지적한다. 만일 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 자격을 공인받기 전에는 자신의 전문직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적게 벌게 될 것이다. 한동안 그들은 피자를 배달하거나 택시를 운전해야 한다. 이 도표의 가설은 자국에서 일년에  $x$ \$를 벌는 이주자가 미국에서의 첫 십년간 일년에  $y$ \$로 줄어들게 되나, 점차로 일년에  $z$ \$를 벌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사각형 B가 사각형 A보다 크다면 이주는 재정적으로 가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노동 기간이 더 긴

젊은이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 주제를 보는 또 다른 방법은 이주를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송출국과 수입국사이의 소득률이 얼마나 낮아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유럽의 부유한 국가와 빈곤국가 사이의 경험에 미루어, 노동이주를 멈추기 위해 임금 내 일자리의 기회가 1:1(자국과 이주한 나라가 동등)이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부유한 북유럽국가와 남유럽의 가난한 국가 사이의 임금률이 4:1가량으로 떨어지자, 이주 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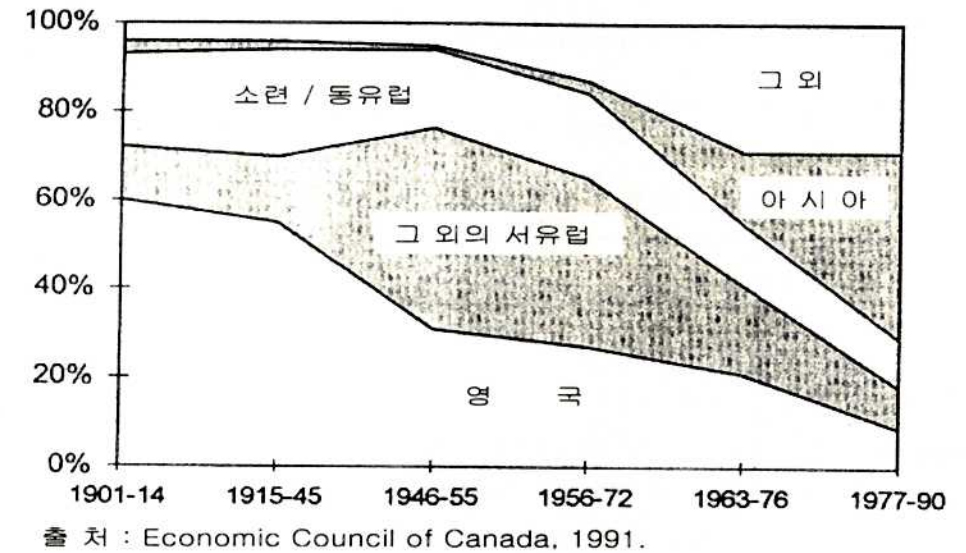
표 3.2 이주이 이득과 손실

	송출국		수입국	
	잠재적 이익	잠재적 손실	잠재적 이익	잠재적 손실
수입국의 이주자 또는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li> <li>수입의 증가</li> <li>훈련 또는 교육</li> <li>새로운 문화적 경험</li> <li>새로운 사람과의 교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된 근로조건</li> <li>장시간의 근로</li> <li>낮은 지위의 일자리</li> <li>인종차별</li> <li>가족과의 이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을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의 제공</li> <li>값비싼 상품과 서비스</li> <li>관리직 일자리를 찾을 기회</li> <li>풍부한 문화생활</li> <li>외국에 관한 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 자리를 위한 경쟁</li> <li>낮은 국내임금</li> <li>생소한 언어와 문화</li> <li>이민자의 빈민촌 형성</li> </ul>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중한 이주자의 기술</li> <li>통신가 여행을 위한 사업의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숙련 노동자의 누수</li> <li>임금을 올리는 노동자의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족한 노동력 총원</li> <li>값싸고 융통성 있는 노동력</li> <li>확대된 시장과 규모의 경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나 그 외의 훈련을 해 주어야 할 필요</li> <li>특정 직업을 외국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li> </ul>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낮은 실업률</li> <li>귀환자의 지식과 기술</li> <li>초국적 공동체의 형성</li> <li>외환의 송금</li> <li>인구압력의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갑자기 돌아온 귀환자를 대처하는 것</li> <li>두뇌의 유출과 숙련 노동자의 누수</li> <li>이주 문화</li> <li>불평등의 심화</li> <li>젊은 세대의 유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낮은 인플레이션</li> <li>이미 교육된 사람의 유입</li> <li>다양하고 활동적인 인구층</li> <li>이민 투자가가 가지고 온 자본</li> <li>젊은 노동자로 부터의 세금 수익</li> <li>젊어진 인구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혁신의 둔화</li> <li>언어나 그 외 훈련에 드는 비용</li> <li>사회적인 마찰 송금으로 인한 국제수지의 손실</li> <li>사회적 서비스 비용</li> </ul>

## 2) 현대 이주의 유형들

한편으로는 산업국가들 사이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 사회주의국가와 가난한 개도국 사이의 커다란 - 그리고 점점 심화되는 - 차이는 세계화의 정치적 과정 그리고 다른 여러 과정들과 함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국제이주를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주의 형태는 이주에 영향을 주는 다른 많은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연결되어 있다. 일부 잠재적인 이득과 손실이 표 3.2에 개략적으로 나타나 있다.

도표 3.2 캐나다, 이민자의 출신국, 1901-1990



### 전통적인 수입국가

가장 커다란 수입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로의 이동은 그 전에는 유럽인에 의해 독점되었으나 이제는 개도국에서 압도적인 수가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는 대개 정치적인 변화의 결과였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까지 서구 이외의 국가에 대한 이민 할당량은 (유럽인들이 독점적으로 이민을 했던) 1920년대의 실질 이민의 이동에 따라 규정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전국을 휩쓴 민권운동의 기세는 이러한 규정 속에 암암리에 내포된 인종차별적인 근거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처음에는 케네디, 후에는 존슨 정부가 이미 미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1965년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을 만들어 제도를 바꾸었다. (대다수의 사람이 유럽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것이 그다지 변화를 주지 않으리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사실상 아시아와 중남미의 많은 사람이 이 기회를 취하였다. 이것과 다른 법률적 변화의 결과, 1951년-1960년, 그리고 1981년-1990년 사이 개도국

표 3.3 미국 합법 이민자의 출신국, 1997

국가	1997 도착	%
1. 멕시코	163,572	18.4
2. 필리핀	55,876	6.2
3. 중국	41,728	5.2
4. 베트남	42,067	4.8
5. 인도	44,859	4.8
6. 쿠바	26,466	4.2
7. 도미니카공화국	39,604	3.4
8. 엘살바도르	17,903	2.3
9. 자메이카	19,089	2.2
10. 러시아연방	19,668	2.1

출처 :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1997

표 3.4 미국 미등록 이민자의 출신국,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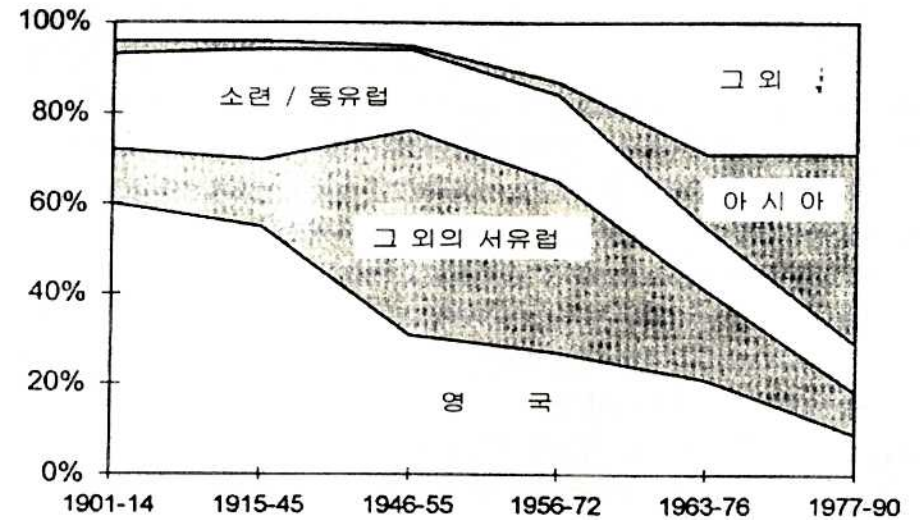
국가	1996년 총계	%
1. 멕시코	2,700,000	54
2. 엘살바도르	335,000	5.6
3. 과테말라	165,000	3.3
4. 캐나다	120,000	2.4
5. 아이티	105,000	2.1
6. 필리핀	95,000	1.9
7. 온두라스	90,000	1.8
8. 폴란드	70,000	1.4
9. 니카라과	70,000	1.4
10. 바하마	70,000	1.4

출처 :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1998

출신의 이민자의 비율은 12%에서 88%로 높아졌다. 표 3.3은 1997년에 미국 이민에 대한 출신지역을 나타낸다. 이에 덧붙여 많은 수가 미등록으로 도착한다. 1996년에 약 5백만의 미등록이민자가 있었다고 추산되는데 그 반 이상이 멕시코출신이다. (표 3.4)

캐나다 역시 1960년대에 이민정책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그 전에는 백인 이민자를 매우 선호하였다. 아시아인과 흑인은 환영받지 못했다. 사실 그들은 때로 체계적으로 배제되었다. 그러나 1962년과 1967년의 법률의 변화에 따라 이 제도는 이러한 차별을 없애도록 검토되어, 대신에 캐나다 노동시장의 필요에 근거하게 되었다. 도표 3.2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는 이민자의 인종적 출신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호주도 비슷하게 변화하였다. 1965년까지 이 나라는 "백호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제도의 폐지는 또한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959년-1965년의 기간 중 단지 3%의 정착자만이 아시아출신이었으나 1994-1995년에는 37%로 증가했다.

도표 3.2 캐나다, 이민자의 출신국, 1901-1990



출처 : Economic Council of Canada, 1991.

### 서 유럽

1950년 이후 유럽으로의 이주는 대개 노동력 부족의 결과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1961년까지 서 인도인들의 이동은 채용되지 않은 빈자리의 수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프랑스 역시 노동자가 부족하여 정부가 외국인고용을 주도했다. 1950년대에 프랑스는 남유럽의 카톨릭국가의 노동자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하도록) 정착하는 것을 장려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공급이 고갈되면 북아프리카 출신의 회교도들이 빈자리를 채웠다. 1960년대에 서독은 프랑스의 뒤를 따랐는데, 이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없이 완전고용 상태로 고도의 성장률을 유지 할 수 없으리라는 우려에서였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이태리, 그리스, 터키,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주요 송출 국가에 고용사무소를 세워 처음에는 계절노동자를 그 다음에는 단기계약으로 일할 가스트아르바이터(Gastarbeiter 초빙노동자:역주)를 구하였다. 1973년에 프랑스와 독일연방공화국은 각기 약 2백5십만 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있었는데 전체 노동력의 10-12%를 차지했다. 그러나 1973년 첫 오일쇼크 이후에 이주자에 대한 수요는 줄어 유럽정부는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단 시작이 된 것은 막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임시초빙노동자로 도착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남기로 결정하고 가족들을 불러들였으며 수백만의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정착하였다. 특히 독일은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에 계속하여 사람들이 모였다. 독일민족, 망명자, 새로운 이주노동자 그리고 이전 이민자 가족들의 도착으로 인하여 독일로 온 이주자는 1988-1994년 동안 동,서독 모두 합쳐 4백만에 달하였다.



## 페르시아만의 국가들

석유가격의 파동은 유럽으로 향한 이민자들에게는 타격이었으나 페르시아만의 국가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전통적인 이주의 움직임이 있어왔으나, 석유가격의 상승은 특히 건축분야에서 폭발적인 노동력의 수요를 가져왔다. 처음에 페르시아만의 국가들은 이웃국가에서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며 수요를 충당 시켰다. 그러나 곧 더 멀리, 특히 아시아로 눈을 돌려야 했다. 1975년에서 1990년 사이에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7개 회원국의 이민 노동자들의 수는 백십만에서 5백이십만 명으로 늘어나 전체 노동력의 68%에 달했다. 1985년에서 1990년 기간 석유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비록 어느 정도 둔화되었고 노동자들이 건설보다는 서비스산업을 위하여 도착했지만, 이민은 계속되었다. 1990년-1991년 사이의 걸프전쟁은 이민노동자에게는 시련의 시기로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떠나야 했다. 점차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비록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렇게까지 의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여전히 이에 의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1996년 쿠웨이트에서 백십만 명에 달하는 전체 노동자들 중에서 단지 176,000명만이 쿠웨이트 시민권자였다.

## 동남아시아

유럽과 페르시아만의 국가들이 노동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주 노동자들에게 의지하는 동안, 비슷한 상황이 아시아에서 발전되었다. 전쟁 후 일본의 놀라운 변신에는 이주노동자에 의해 이룩된 것은 거의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사회로 이민자들이 단일 민족인 자국에 미칠 사회적 영향에 대해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은 이민자들로 노동력의 부족을 충당하기보다는 기술의 수준을 높여 제조업의 노동량을 줄이고, 해외에서의 생산에 많이 투자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지 부분적인 해결이었고 1980년대 말기에는 노동력의 부족이 무척 심해졌다.

이러한 많은 노동력 부족이 단기 계약 이민자들로 채워져, 1995년 일본에 등록된 외국인 거주자들의 수는 백 36만명으로 최고치에 달하였다. 비록 이들의 절반 가량은 한국인으로 대다수가 몇 세대를 일본에서 살아 온 사람들이지만, 이는 인구의 1.1%에 달하는 것이다. 덧붙여 많은 수가 미등록으로 도착하였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관광비자로 들어와 자신의 비자기한 보다 오래 체류하고 있다. 1990년에서 1993년 사이에 이들 기간초과체류자들은 공식통계에 의하면 106,000명에서 297,000명으로까지 증가하였다. 이들 초과체류자들의 4분의 3이 태국,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란 그리고 중국의 6개국에서 오고 있다.

동남아시아 곳곳의 빠른 경제성장은 많은 새로운 이주를 촉진시켰다. 싱가포르, 홍콩, 한국, 대만 등 신흥공업국(NIEs)은 모두 이민노동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일본처럼 이들 국가들은 기술의 수준을 높여 노동력 부족을 피하려 하였으나 어찌 됐든 이민노동자들을 받아들여야 했는데, 특히 건설업과 같이 많은 수의 미숙련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산업은 더욱 그러하였다. 이들 국가는 모두 이주자들을 통제하려 하였다. 싱가포르가 가장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 나라에는 1995년에 약 350,000명의 외국인노동자-노동력의 21%-가 있었는데 미등록

이민자들의 고용주에게 강한 제재를 가하였다. 그러나 이 곳에서조차도 미등록노동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들의 뒤를 따르고 있는 나라가 태국과 말레이시아로 대표되는 차세대 신흥공업국이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이동은 한층 더 복잡하다. 이들 국가들은 이주노동자의 공급지이며 목적지이기도 하다. 태국에는 약 600,000명의 이주노동자가 들어와 있는데, 동시에 372,000명의 태국인노동자들이 아시아 각지에 퍼져있다. 예를 들어 1996년 대만에는 120,000명의 태국인노동자가 타이페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한편, 태국의 북부에는 수십만의 버마노동자들이 아시아 게임이 열릴 스테디디움을 건설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동의 복잡성과 범위를 고려하면, 동아시아에서 이주자의 수는 전체적으로 2백6십만명으로 추산된다. 아시아의 금융위기 이후에, 이러한 이주자들을 돌려보내려는 압력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으나 앞서 산업화된 나라에서처럼 이들 신흥공업국가들에서도 이민노동력이 경제와 사회에 구조적으로 뿌리박혀져서 침체기 동안에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후에 10장에서 논하게 될 것이다.

## 다른 이동들

노동의 이주는 참으로 세계적인 현상이고 다른 지역도 또한 이주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 아프리카는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사실상 무시하면서- 광산이나 농장에 일하기 위하여 옮겨왔다. 가장 지속적인 형태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외딴 내부지역이나 국가에서 해안에 가까운 지역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가장 집중적으로 모이는 지역이 서 아프리카로, 아이보리코스트나 니이지리아와 같은 부유한 국가로 이동한다. 아프리카남부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언제나 사람을 끌어 들였으나, 미등록노동자들의 이동은 인종차별 철폐 후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미등록이민자들의 수는 논란이 되고 있다. 미등록이민자의 수는 약 3백만명이라고 내무부는 1995년 발표하였으나, 다른 곳에서는 많게는 8백만(인구의 20%)로 추산하는데, 대부분은 모잠비크, 짐바브웨, 레조토에서 오고 있다고 한다.
- 구 소련과 동유럽이 지역의 정치적인 격변은 또한 많은 이주자들을 발생시켰다. 9백만 이상의 구 소련 시민들이 소련체제의 붕괴 이후 이동하였다. 이들 중 대다수가 피난했거나, 이제는 다른 공화국이 되어 버린 곳으로 이동했던 사람들로 자신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러시아인들이었다. 이들 중 약 2백 7십만명이 1993년에서 1996년 사이에 러시아로 이동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였다. 1996년에 러시아에는 350,000명의 합법 외국인노동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 중 600,000여명이 모스크바에 있었는데, 그들 중 3분의 일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었다. 반면 이들 외에도 러시아에는 400,000명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동

유럽내의 이주 외에도, 이들 국가들은 서유럽으로 쉽게 입국하려는 이주자들의 대기장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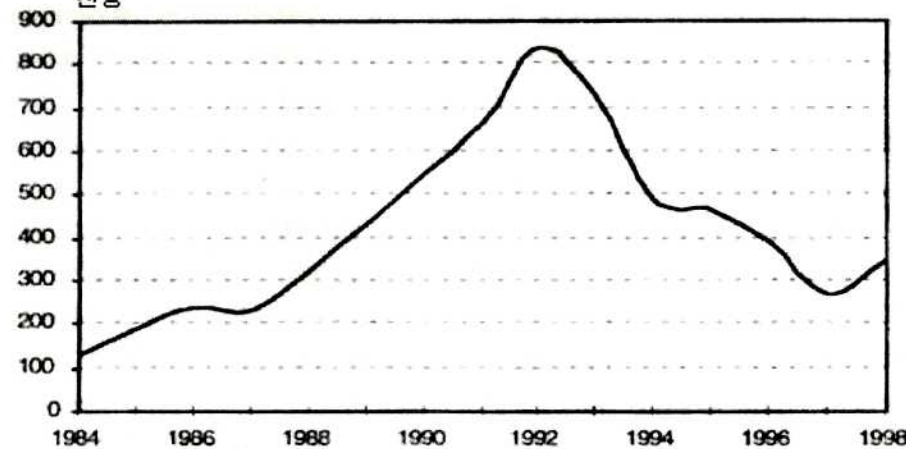
· 라틴 아메리카 주된 이주는 북쪽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로 향하는 이웃 국가들의 이동도 약간 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에는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에서 온 약 200,000명의 미등록 이주자들이 있다. 멕시코는 중미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이들은 대개 더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 남부의 높은 임금은 과테말라출신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며 커피농장이나 건설 또는 가사노동을 하게 한다.

### 난민

국제적인 노동의 이동은 언제나 난민의 이동과 섞여 있다. 이는 정치 난민을 양산하는 갈등이 경제적인 혼란과 가난 또한 양산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난민지위를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련의 붕괴 그리고 구 유고슬라비아의 전쟁 이후, 매년 망명지를 찾는 사람의 수는 1970년대에 단지 30,000여명이었던 것에 비해 1992년에는 800,000명으로 증가했다.

망명지위를 요청한 사람 중 소수만이 성공한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도 대개 이민 노동자가 된다. 망명을 요청하는 과정은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된다. 망명이 거절된 사람들을 송환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1994년 유럽에서, 전체 481,000명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단지 10%만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외에도 12%가 인도적인 이유로 궁극적으로 체류가 허락되었다. 이러한 압력의 결과, 유럽 국가들은 비자요건의

도표 3.3 IGC(정부간 협의 기구) 국가들에 대한 망명 신청자, 1984-1998  
천명



출처 : 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s on Asylum, Refugee and Migration Policies in Europe, North America and Australia (IGC), 1999.

강요, 항공회사에 대한 규제 뿐 아니라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제 삼국을 통해 경유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망명에 대해 점차 장벽을 강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엄격해진 환경은 많은 잠재적 신청자를 막고 있다. 도표 3.3이 나타내는 것처럼, 유럽, 북미, 호주에 대한 신청자의 수는 급격히 떨어져 1998년경에는 350,000명으로 줄었다.

### 3) 결론

국제 이주의 현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그들은 부국과 빈국사이의 커다란 임금격차에 반응하나 이러한 격차는 정치상태가 아니다; 파키스탄과 한국과 같이 경제적으로 비슷했던 나라들이 최근 수십 년간 훨씬 격차가 나게 되었다.

이주는 기본적으로 임금의 격차에 의하여 양산되고 있지만, 수입 국가들이 새로운 이주자에 대해 더욱 저항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압력에 의하여 또한 왜곡된다. 결과적으로 특히 유럽으로부터의 이주와 같은 일부 전통적 경로는 고갈되는 한편 많은 새로운 경로들이 생기고 있는데 특히 동남아시아가 대표적이다. 세계화의 현 단계가 이러한 새로운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다음 장에서 상품의 확장된 이동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대신하게 되리라는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 4. 사람대신 상품의 수출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국제 무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여행해야 할 필요를 줄일 것인가? 대신에 그들이 고국에 머무르면서 상품을 보낼 수는 없는 것인가? 방글라데시의 섬유 노동자들이 일본의 공장에 일하기 위하여 도쿄로 여행하는 대신, 다카에 머무르면서 일본으로 셔츠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정통 신고전주의 무역이론(Heckscher-Ohlin 모델)은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한다. 국가들은 상대적 이익이 있는 상품들을 생산하고 수출하게 된다. 자본, 노동, 자원, 또는 기술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에 의하여 그 이익이 결정될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기술이 필요 없는 셔츠를 만들기 위한 값싼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 있다. 반면 일본은 다카의 거리를 누비는 많은 토요다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풍부한 자본을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무역이 이주를 대체할 것이다.

### 1) 현실세계

신고전주의 경제학 대부분의 예언처럼, 무역이 이주를 대체하리라는 신고전주의 견해는 현실 세계의 상태와는 거리가 먼 추정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적용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변화를 만들려 노력해도 기득권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고용주와 노동자는 무역장벽의 철폐에 저항하거나 최소한 늦추려고 할 것이다. 섬유와 의류산업이 가장 두드러진 예이다. 고용주들이 기꺼이 받아들인다해도 천천히 이루어진다. 부유한 나라의 기업가들은 (때로는 이민노동자들이 일하는) 노동집약적인 상품의 생산을 멈추고 자본집약적인 상품으로 이전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가난한 나라의 기업가들은 보호받아 오던 자본집약적인 상품에서 해외에 커다란 시장이 있는 노동집약적인 상품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는 것 이외에도 다른 이유로 인해 원했던 만큼 이익이 곧 생기거나 많지 않을 수 있다. 비록 개도국은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생산력과 국제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결점이 있다.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들은 전형적으로 교통이나 통신과 같은 기간시설이 결여되어 있어 국제시장에 반응할 수 있는 속도를 내지 못한다. 그에 더하여 그들의 노동력은 교육되거나 훈련되어 있지 못하여 유연성이 없고 생산적이지 못하다.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조차도 반드시 이주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사실상 처음에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산업이 생기기도 전에 국제경쟁력에 의하여 기존산업이 더 빨리 파괴되기 때문에, 그리고 직업의 상실과 새로운 직업의 창출 사이의 시간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민하여야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고 임금이 증가하면 노동자들의 이동이 더 쉬워지고 해외로 이주할 자금이 생긴다. 발전이 상당기간 이루어진 후에야 사

람들은 고국에 머무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아 좋다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 이주가 처음에는 성장하고 나중에는 줄어드는 현상을 "이주의 포물선(migration hump)"이라고 칭한다. 이러한 현상은 6장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인데, 단지 무역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무역이 일정 역할을 담당한다. 4장에서는 단기, 중기간의 무역 양상의 변화와 이것이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것이다.

### 2) 새롭고, 새로운 경제질서

장기적으로 무역자유화는 개도국의 고용을 확충시킬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예상은 이미 산업국가 사이에서 상당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유럽공동체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성장, 경쟁력, 그리고 고용"이라는 1994년 백서에서 유럽경제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천이백만명의 실업자가 있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마침내 후진국들이 분발하여 유럽시장 안에서까지 우리가 상대도 할 수 없는 가격으로 경쟁하기 시작하였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에서도 같은 우려가 북미자유무역기구(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에 출마했던 로스 페로는 일자리가 리오 그란데(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이루는 강: 역주)를 건너 남쪽으로 몰려가게 만드는

"엄청난 빨아들이는 소리"에 대해 경고한 것은 유명하다. 노동조합 역시 주요한 일자리가 손실되어 21세기의 첫 10년간 약 50만개의 일자리가 빠져나가리라고 경고하였다.

이는 이십여년전에 표현됐던 두려움이 반대로 바뀐 것이다. 그 때는 세계시장의 통합이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의 차이를 더욱 넓혀 놓아, 가난한 국가를 더욱 뒤쳐지게 하리라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원수출국을 국제시장의 변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많은 원조와 생필품협정을 포함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요하게 되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또한 가난한 나라들이 부유한 국가의 착취로부터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역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분위기는 정반대로 변했다. 이러한 의견의 변화는 발전 양상의 변화, 또는 더 관대하게 경험이 주는 교훈의 탓으로 돌리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이 세계통합의 각기 다른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경제학자인 크르그만과 베나블스는 이러한 것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그들은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간단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둘은 각각 두 종류의 상품을 생산한다. 하나는 실질적인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생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위당 생산비용이 체감하는 일: 역주)가 없는 농산품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있는 공산품이다.

만일 양 지역 사이의 운송 가격이 매우 높다면, 양 지역은 본질적으로 자급 자족적이며 무역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운송비가 떨어지면, 상황은 변화되어 무역은 증가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한 지역이 이미 더 많은 제조업분야를 지니고 있다면, 이러한 장점을 이용할 것이다. 이 지역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할 뿐 아니라 중간상품의 생산을 위한 커다란 시장을 제공

하여, 이들 생산의 장소를 정하는데 더욱 매력적인 장소로 보이게 될 것이다. 중간상품의 자국내 생산이 증가하면, 이것을 쉽게 이용 할 수 있어서 제조가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으로 인하여 단일한 세계는 산업의 중심국과 비산업의 주변국으로 편성 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의 변화는 노동시장을 분산시킬 것이다. 중심국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주변국에서 수요는 떨어지게 된다. 세계의 통합은 그리하여 고르지 못한 발전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운송가격이 훨씬 더 떨어지면, 상황은 다시 두 가지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제조상품과 유사하게 생산된 중간상품을 가지는 것은 유리하지 않게 된다. 두 번째, 임금이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주변국이 생산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운송가격이 떨어지면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단점은 주변국의 낮은 임금에 의해 어느 정도 상쇄된다. 제조는 중심국에서 주변국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양국사이의 임금의 차이는 통합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단순화 된 모델은 물론 현실세계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모든 국가들이 평등했던 시기는 결코 없었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언제나 산업국가의 뒤에 처졌다. 인도의 방직 산업이 영국에 의하여 파괴된 것처럼, 한 나라의 산업이 부국에 의하여 훼손을 당했을 때조차도 이는 시장의 영향력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식민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어찌됐든 이는 가난한 나라의 초기단계 산업발전이 어떻게 억눌려졌는가에 관한 그럴듯한 설명이다. 그리하여 개도국이 자본집중적인 생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과거의 두려움과 산업국가가 값싼 노동력에 의하여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현재의 두려움은 모두 옳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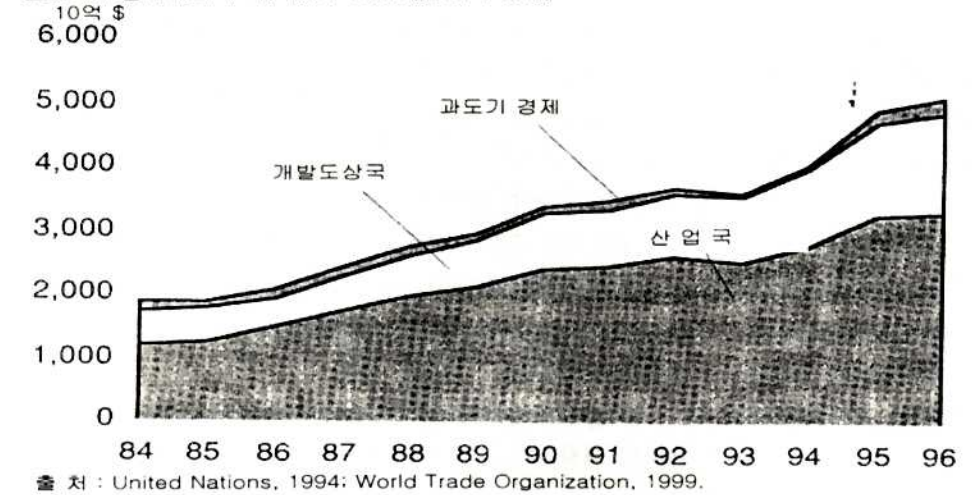
### 3) 산업국가에서 무역이 고용 전반에 미치는 영향

무역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산업국가에서 개도국으로 옮겨질 것인가? 현재에 이르는 커다란 규모로는 발생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산업국가는 세계적인 경쟁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직면하고 있으나, 이는 개도국과의 경쟁은 아니다. 도표 4.1은 무역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여 왔는지 보여준다. 개도국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요하다고 할만한 양은 아니다. 1984년에 이들 국가는 세계수출의 28%를 차지하였으나, 1996년에는 30%에 달했다가 1998년에는 다시 28%로 떨어졌다.

반면 개도국의 수출에 대한 비율 면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가려져 있다. 1980년에 와서 개도국 수출의 15%만이 공산품이 되었고, 1989년에 이 비율은 53%로 성장하였다.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1차산업제품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오래된 무역양식이 선진국과 후진국이 각기 다른 종류의 공산품을 전문화하는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동시에 도표 4.2에 나타난 것처럼 개도국은 점점 더 서로간에 무역을 행하고 있다. 1980년에 개도국 수출의 67%가 산업국가로 향한 것이었으나 1996년에는 이러한 비율이 55%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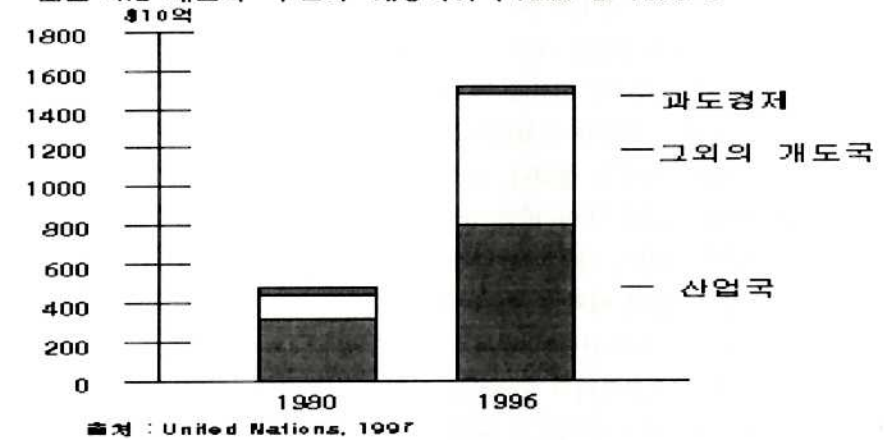
산업국가에서 그 영향은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개도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나면 적어도 처음에는 노동집약적인 상품에 집중이 되어 산업국가의 미숙련노동자와 단순노동자들을 해고하게 된다. 가장 놀라운 평가는 1960년에서 1990년 사이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산업국의 미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12%-28% 사이로 줄었으며, 이러한 변화의 70%가량

도표 4.1 전세계의 무역, 1984-1998 (천10억 US\$)



출처 : United Nations, 1994; World Trade Organization, 1999.

도표 4.2 개도국 수출의 대상국가, 1980년 1996년



출처 : United Nations, 1997

이 1980년대에 생겨났다는 것이다. 다른 분석은 더 보수적이다. 그들은 1990년대 초기에 개도국으로부터의 공산품수입은 산업국 GDP의 단지 2% 가량에 불과하였고, 그 영향도 훨씬 제한적이었다고 한다. 중요한 문제는 미숙련노동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최근에 주장한다. 무역이 이러한 탄력을 증대시켜, 비록 고용을 줄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산업국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약화시켜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전반적인 고용에 미친 영향이 적은 이유는 산업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분야에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농산품과 공업생산품은 노동력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OECD국가(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전체

에서 농업과 공업은 이제 세 개의 직업 당 하나일 뿐이며, 거의 어느 곳에서든 그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1960년부터 1990년 사이에 프랑스에서는 59%에서 35%로 줄었으며; 독일은 62%에서 43%로 줄었고; 미국에서는 39%에서 28%로 줄었다. 그리하여 경제는 더 개방적이 되었을지 모르나 외국과의 경쟁에 직접 노출된 사람들은 여전히 노동력의 일부분일 뿐이다. 미국에서 GDP의 비율로 보아, 수출과 수입은 모두 합하여 1950년대에 약 10%가량에서 1980년대 말에는 20%이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줄었다.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수는 줄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 -특히 저숙련인 사람들은 저임금국가로부터의 심화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그 결과는 노동시장의 구조에 달려있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에서 그 영향이 임금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한편 유럽에서는 궁극적으로 실업으로 나타난다.

미숙련노동자의 수난은 최근 몇 십년간 OECD국가들 사이에 확실히 심화되었다. 모든 국가에서 블루칼라노동자의 실업률은 전형적으로 화이트칼라노동자의 두배 가량 높다. 이러한 비율은 침체에 더욱 심화된다. 그러나 얼마만큼이 수입 때문이고 얼마만큼이 기술의 변화 때문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미숙련과 숙련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미숙련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숙련노동자의 비율 증가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이나 수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산업에 국한 된 것은 아니다. 이는 또 다른 공통적인 요인이 있음을 나타내며,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도의 기술 때문이라고 많은 연구는 결론짓는다.

유럽에서 낮은 임금의 국가에게 고용을 빼앗기는 것에 관해 가장 활발히 토론하는 나라가 프랑스이다. 1993년 노동력의 12%가 실업상태였는데, 의회위원회에 제시된 보고서에는 해외에 위치한 프랑스회사에게 책임을 돌렸다. 한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3대 산업 -섬유와 의류, 전자, 그리고 제철분야가 영향을 받아 10년 동안 고용이 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상당량의 다른 조사는 이러한 발전이 기술의 변화와 경제침체 모두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비록 일부 프랑스의 초국적기업이 해외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 중 5%에 못 미치는 기업이 프랑스의 생산기지를 문닫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산업국의 고용은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OECD의 전반적인 평가이다. 무역으로 대체된 고용은 백만에서 9백만 연노동시간에 이른다. NAFTA가 미국의 고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1996년의 연구는 그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며, 심지어는 긍정적이기까지 하여 증가된 수입으로 인해 28,168개의 직업이 없어진 한편, 증가된 수출로 31,158개의 직업이 생겼다고 결론짓는다.

#### 4) 무역이 산업국의 이민자고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하여 무역은 주요한 요소는 아닐 지라도 산업국에서 미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하락하도록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전체노동력에 미칠 것인데, 이민자는 이 전체 노동력의 단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인구나 노동력 중 이민자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국가에 한해서 표 4.1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수치는 누가 외국인이고 누가 이민자인지는 나라마다 일정하지 않으므로 모든 국가가 완전히 비교될 수는 없다. 유럽의 OECD국가와 일본은 현재 시민권의 유무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호주, 캐나다, 그리고 미국은 출생지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예를 들어 시민권을 얻기가 어려운 독일에서 보다 취하기 쉬운 프랑스의 "외국인"의 비율을 낮추게 된다. 이러한 수치는 또한 미등록노동력을 제외시키게 된다. 어찌 됐든 넓은 범위에서 이 표는 이민노동력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1996년 큰 국가 중 스위스의 17.9%에서부터 스페인의 1.0%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수치는 1980년대 초기 이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1 외국인 또는 이민 인구나 노동력, 1996

	외국인 인구나		외국인 노동력	
	천	%	천	%
호주	3,908	21.1	2,238	25.0
오스트리아	728	9.0	328	10.0
벨기에	912	9.0	196	6.5
캐나다	4,971	17.4	2,681	18.5
덴마크	238	4.7	84	3.0
프랑스	3,597	6.3	1,573	6.2
독일	7,314	8.9	2,559	9.1
아일랜드	118	3.2	53	3.5
이탈리아	1,095	2.0	332	1.7
일본	1,415	1.1	88	0.1
룩셈부르크	43	34.1	117	58.3
네덜란드	680	4.4	218	3.1
노르웨이	158	3.6	55	2.6
포르투갈	173	1.7	87	1.8
스페인	539	1.3	162	1.0
스웨덴	526	6.0	218	5.1
스위스	1,338	19.0	709	17.9
영국	1,972	3.4	878	3.4
미국	24,600	7.9	11,564	9.4

출처 : SOPEMI/OECD, 1998

각주 : 미국, 호주, 캐나다의 경우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 대한 집계이다. 프랑스 인구에 대한 자료는 1990년이다. 벨기에의 노동력에 대한 자료는 1989년, 캐나다는 1991년, 덴마크와 이탈리아는 1990년의 자료이다

문제는 이들 이민노동력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이 수입과 경쟁하는 분야에 고용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로 환원된다. 이 또한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민자들은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나, 그 분야는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에서 이민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분야는 농업이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는 광물의 채취와 공정이다; 덴마크, 독일, 호주, 캐나다에서는 제조업이다;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에서는 건축과 토목공사이며; 영국에서는 서비스분야이다.

## 미국

수입이 이민자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각 지역마다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미국의 국가경제연구소는 무역된 상품의 생산에 있어서 이민자의 참여를 분석하였다. 전체 이민자들이 1980년 노동력의 6.5%를 차지하는 한편, 비무역상품(노동력의 6.1%)보다는 무역상품(노동력의 7.8%)에 이민자들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분석은 더 나아가 전체 선적량의 비율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을 측정하는 수출과 수입의 강도(export and import intensity)에 따라서 무역상품 분야를 나누었다. (수출강도의 최상위 5분의 1은 "고수출"품(high-export goods)으로, 수입강도의 최고 5분의 1은 "고수입"품(high-import goods)으로 간주된다) 고수출상품에 대하여 이민자들은 노동력의 7.5%를 차지하는 한편, 고수입품에 대하여서는 노동력의 10.4%를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이민자들은 본국인보다 외국경쟁에 훨씬 더 노출이 되어 있다. 반면 이 분석은 또한 노동력 중 흑인이나 여성들의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로스앤젤리스에서 의류와 같은 비내구재 제조업이 가장 명백하여, 의류와 같은 분야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979년에서 1991년 사이에 고용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산업은 이민자에게, 특히 멕시코인에게 막대하게 의지하고 있다. 멕시코이민자들은 그리하여 수입의 침투로부터 가장 커다란 위험을 받는 산업에 과하게 나타난다.

## 유럽

유럽에서는 무역상품 분야에 이민자의 집중이 나타난다는 증거가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같은 방향을 나타낸다고 여겨진다. 유럽 전체가 미국보다는 국제무역에 더 의지하고 있다. GDP의 비율로 보아, 1994년의 수출과 수입은 유럽공동체 GDP의 69%였으나 미국은 단지 27%이고 일본은 23%였다. 그리하여 많은 비율의 유럽인구가 수입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다.

더욱이 이민자들은 미국보다도 특정분야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을 수 있다. 1982년 노동력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독일 노동자의 38%가 제조업에 있으나, 이민자들의 경우 이러한 비율은 56%이고, 수출이 활발한 분야에서는 그다지 고용되어 있지 않다고 여겨진다. 프랑스에서도 역시 29개의 분야에 나타난 자료로 보아, 이민자들은 수입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13%라는 가장 높은 비율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있는 분야는 섬유와 의류이다)에서 발견이 된다. 비록 그다지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유사한 결과가 스페인에서도 나타난다.

## 농업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요하는 산업 중 많은 분야가 또한 많은 수의 이민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1960년대 동안에 미국에는 이주 농업노동자가 결국에는 없어지리라는 예견이 있었다. 이는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여 인력에 의한 노동을 필요 없게 하거나, 또한 생산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호주의와 이주자의 유입으로 인해 많은 농업기업들은 살아남게 되었다. 1991년에 미국노동청은 미국 곡물생산분야에서 고용되어 있는

모든 노동자의 73%가 외국태생이라고 추산하였다. 이들 노동력의 대다수가 불법으로 일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700,000명의 농장노동자 중에서 반이 미등록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이민귀화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에서 묵인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지역연구소에 따르면,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에 이민귀화국 직원은 이 주의 32,000개의 농장 가운데 단지 32개만을 방문하였다.

예를 들어 토마토는 킬로그램 당 4.6%라는 관세에 의하여 뿐 아니라, 작은 토마토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과 같은 비관세 장벽에 의하여 멕시코나 다른 나라의 경쟁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는다. 그러나 플로리다의 토마토는 기본적으로 멕시코인의 노동에 의하여 수확된다. 아보카도는 또 다른 예이다. 미국으로 향하는 멕시코인 노동자들의 주요 출신지역 중의 하나가 미초아칸인데, 이곳에 100,000명의 노동자가 8,000개의 아보카도 농장에 고용되어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미국은 멕시코에서 아보카도를 수입하는 것을 반대하여 왔다. 전 멕시코 대통령인 살리나스가 사람이 아닌 상품을 수출하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NAFTA로 인해 관세장벽이 점차 낮아져 결국에는 더 많은 과일과 농수산물도 멕시코 국경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을 가까운 장래에, 그리고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는 포도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멕시코 생산품이 보완을 해주어 미국에서 일년 내내 사용되기 때문이다. 사실 멕시코의 주된 상대적 우위점(플로리다주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생산이 중지되는 겨울에도 과일과 야채를 생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종합회계소는 멕시코 원예수출의 3분의 1이 (가치면에서) 미국의 상품과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으며, 다른 12%는 미국의 계절별 생산을 보완하는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미국의 노동집약적인 과일과 야채생산의 약 4분의 3이 멕시코의 농장이 생산하지 않을 때 출고하기에, 미국의 농장은 언제나 유리하다고 한다.

어쨌든 일부 생산은 이미 국경을 넘어서 이주하고 있다. NAFTA를 통하여 관세가 불과 10년에 걸쳐 없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향을 받은 작물의 하나는 브로콜리이다. 15년 전에 캘리포니아의 왓슨빌에서는 포장에만 5,000명 이상을 고용하여 "세계 냉동야채의 수도"라고 불리웠다. 오늘날 냉동야채산업은 거의 사라졌다. 이는 부분적으로 소비자의 취향이 변했기 때문이지만, 또한 멕시코로부터 냉동 브로콜리와 컬리플라워의 수입이 막대하게 증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80년에서 1995년 사이에 미국 브로콜리 시장내의 비율면에서 냉동상품의 수입은 3%에서 60%증가하였다.

그리하여 농산품 무역이 이주를 대체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옮겨지게 될 일자리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일부 해석가들은 미국과 멕시코의 투자자들이 멕시코에서 상당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5년에서 10년은 걸리리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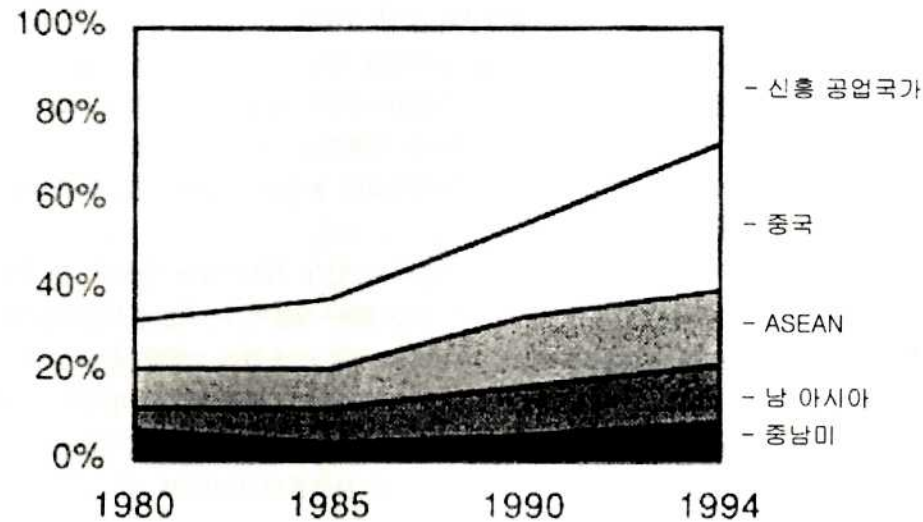
## 섬유와 의류

제조업분야 중에서 전형적으로 값싼 수입품에 취약한 산업은 의류와 섬유이다. 이는 산업화되고 있는 국가들이 첫 번째로 생산하는 경향이 있는 제조상품이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

명 초기부터 19세기의 미국, 독일,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섬유는 이러한 양상이 확립되었다. 의류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유사한 양상이 이들 국가에게 나타난다. 1950년대 현대의 신흥산업국가들도 의류와 섬유에 막대하게 의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ASEAN(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연맹의 국가 뿐 아니라 남아시아와 중남미가 이를 뒤따르고 있다. 그 결과 직물과 섬유는 산업국가와 개도국 모두에 걸쳐 전 산업국가 모두에 지역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 있다.

또한 이는 전망이 매우 좋은 산업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옷을 원하며,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이 옷을 산다. 이것은 세계무역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 1970년에서 1994년 사이의 의류와 섬유의 세계무역은 180억\$에서 2,760억\$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동안, 이 빠르게 성장하는 무역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1%에서 54%로 성장하였다. 개도국은 더욱 노동집약적인 의류 무역에 진출을 하여, 수출의 62%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나라간의 분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히 바뀌어 왔다. 도표 4.3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 무역은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 의하여 빠르게 점유 당하고 있다.

도표 4.3 개도국 의류 수출의 분포, 1980 - 1994



출처 : Yang, Y., and C. Zhong, 1996

각주 : 신흥공업국(NIEs)는 한국, 홍콩, 대만이며

ASEAN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이다.

산업국가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극히 낮은 임금을 지불한다. 미국 의류노동자들의 약 70%가 여성이며, 그들의 1996년 시간당 임금인 7.94\$는 제조업의 평균임금인 12.71\$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미국의 22,000개의 등록된 봉제공장 중에서 반 이상이 최저 4.25\$이하로 지불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많은 착취적인 의류공장들이 이민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대개 미등

록인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 1995년 8월에 가장 놀라운 사례가 드러났다. 74명의 태국여성들이 L.A.의 한 아파트에 감금되어 하루에 17시간씩 일주일내내 일하도록 강요당하고, 한시간에 1.60\$가 지불되었던 것이 발견되었다.

자국의 국경내에서 이러한 경쟁에 직면하면, 의류제조자가 다른 곳으로 생산을 옮기기로 결정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반면에 제한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착취적인 공장이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의류산업의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시장 가까이에 공장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유럽의 의류산업의 유행도 비록 일부국가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잘해내었지만 비슷한 유형을 보여 주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곳은 스웨덴인데, 이 나라는 의류 산업에 대한 보호를 사실상 철폐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난 30년간 생산은 90%가 감소하였다. 이외는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로 가장 많은 의류를 생산하는 나라중의 하나인 이탈리아는 수입에 의하여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사실 1990년대 초기에 이탈리아는 홍콩의 뒤를 잇는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였다. 이태리의 도급계약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이 산업을 지속하게 하는 것 같다. 이는 이탈리아의 시간당 임금이 주요 산업생산국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때문에 -미국보다 70%가 높다. 놀라운 성취이다. 1980년대에는 169,000명에 달한 고용이 1985년에는 140,000명 가량으로 줄었으나, 1990년에는 다시 150,000명 가량으로 증가하였다.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의류 생산자들은 질을 향상시키고 -때때로 미등록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소규모의 생산자들과 계약하여 경쟁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있었다. 이탈리아의 생산자들은 시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다른 산업국에 대부분의 외국투자를 하였다. 1990년대 동안에 가격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어 처음에는 동유럽에, 그 다음에는 지중해 연안 국가에 투자하였다.

그 후에 심지어는 최대의 의류생산국인 홍콩조차도 압박을 받게 되어 의류공장을 중국남서부로 이전하였다. 1995년에 의류노동자들의 실업은 거의 10%에 달했다. 대만 역시 의류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높은 임금을 주기 어렵게 되어, 의류공장의 자본회전율은 20%에서 40%가 되었다. 그 결과 많은 대만생산자들이 중국본토로 이전하였다.

중남미에서 생산은 이민으로 충당되는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의지한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에서 200,000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볼리비아인이 있는데, 그들 중 대다수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미등록 볼리비아인과 파라과이인을 고용하여 주 60시간 노동에 한달 300\$ 밖에 지불하지 않은 한국인 소유의 섬유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 5) 자유무역이 이주송출에 미치는 영향

선진국에서 "수출"된 일자리가 후진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특히 그 일자리가 없었으면 이주하였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을까? 장기적으로 무역은 고용을 극대화할 것이다. 간단한 계산이 성취 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송출국가는 노동이 부가가치의 70%에 달하는 상품을 수출 할 수 있으며, 노동이 단지 30%에 달하는 상품을 수

입할 수 있다. 만일 이들 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GNP의 20%를 수출한다면 무역 수지는 자국노동력의 8%가 이주해 나가는 것과 동등할 것이다. 이는 확실히 상당한 분량이나 그 자체로 이주를 완전히 저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 자유무역으로 인한 고용의 손실

자유무역은 경쟁할 수 없는 개도국산업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 1990년에 산업국 수출의 20%가 개도국으로 갔다. 1996년에는 이러한 비율이 26%에 달하였고 20세기말에는 30%에 달했을 것이다. 그 전에는 보호 되어왔으나 국내의 수요가 없는 시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더 큰 실업으로 이끌 수 있다.

### 제조업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여 국내 제조용량을 형성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훨씬 심한 경쟁에 직면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멕시코는 이미 NAFTA 이전에 이러한 과정을 많이 겪어 왔다. 멕시코가 1987년 GATT(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 조인한 이후에 수입품에 대한 평균관세는 45%에서 9%로 줄었고, 1986년에서 1991년 사이 상품의 수입은 매년 20%가량 증가하였다. 그 결과 멕시코시티 한곳에서만 500개의 엔지니어 회사가 파산하였다. 일자리의 손실은 심각한데, 쉽게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숙련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농업

이민송출에 관하여 영향이 더욱 심각한 것은 농업이 처한 운명이다. 개도국의 상당수가 고비용 농산물 생산국으로, 관개나 기술의 투자와 관계없이 소규모 가족경작에 의해 재배되는 옥수수나 같은 작물은 특히 심하다. 자유화로 인해 뚜렷하게 이주에 영향을 받은 나라는 필리핀이다. GATT협상의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 이후에, 필리핀은 식량수입 할당량을 점차 관세를 줄이는 것으로 바꾸고 있다. 1990년대 말에 미국 수입품은 현재 필리핀가격의 30%이하로 구입 할 수 있게 된다. 2004년에 이러한 차이는 39%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수입장벽의 철폐는 50만의 가정 -2백5십만에 달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기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옥스팜(Oxfam)은 말한다.

부분적으로 이는 미국 생산자의 기술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확실히 많은 도움을 받는다. 미국과 유럽에서 농업은 상당한 보조를 받는다. 1995년 OECD국가 전체에 이루어진 다양한 보조는 이들 농업산출 가치의 40%가량에 달한다. 1995년 각각의 미국 농민에게 돌아간 일인당 보조비는 29,000\$ 이었다. 이는 필리핀 옥수수농부 일년 수입의 100배이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이러한 보조에 찬성하지 않았으리라고 짐작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농업은 덤핑이 합법적인 무역관행으로 남아있는 분야이다. 이것이 백이십만에 달하는 필리핀의 옥수수경작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명백하다.

필리핀 정부는 피해를 보는 사람의 수는 훨씬 적고, 경쟁압력은 효율면에서 많은 소득을

이끌며, 무역자유화는 평균 소득을 올리게 되리라고 주장하며 그 결과에 그다지 비관적이지 않다. 아마도 이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수입분배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옥수수 경작자가 가장 가난한 농민이기에 부정적이다. 주요 옥수수 생산지는 민다나오인데 그곳에서는 5살 이하의 어린이 3분의 일이 영양결핍으로 앓고 있다. 반면 이들의 가족은 국제이주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리핀에서 농촌을 떠난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한 지역에서 좀 더 부유한 지역으로 이주하여 고용의 사다리 최하단계부터 시작하는 한편, 대부분의 국제이주는 필요한 기술과 인망이 있는 사다리 윗부분에 속하는 부유한 지역출신의 사람들이 하게 된다.

멕시코노동자들도 비슷한 시련에 직면한다. 대부분의 멕시코의 농업은 옥수수와 콩의 생산에 근거하며, 매우 비효율적이다. 1991년 경제활동이 활발한 멕시코인의 23%가 농업에 종사하나, 단지 GDP의 7%만을 기여하는데, 이 비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1970년대 말에 정부는 생산자에게 보장한 가격을 (세계가격의 거의 두배로) 올렸고 수입에 대한 보조도 올렸다. 그리고 나서 상품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 외환위기 이후에 이 정책은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이후 여러 번의 개혁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89년 정부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규제를 풀어 재산권을 재형성하였다. 그러나 NAFTA가 요구한 개혁은 훨씬 광범위한 것이었다. 멕시코는 보조를 철폐해야하고, 국제가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농토의 8분의 1에 지나지 않는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경작하는 멕시코 소농민들이 농업 보조를 받는 미국상품과 싸워야한다는 것이다.

옥수수를 경작하는 소농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보조를 받을 때에도 소농민들은 가난에 찌들어 수십년간 도시에서 도시로, 미국으로 이주하여 왔다. 그러나 2백4십만 가량의 옥수수생산자들에 대한 보조의 철폐는 수십만명을 농촌에서 몰아낼 것이다. 최고 800,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농촌을 떠나고, 그중 600,000명 이상이 미국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1996년 중반, 500,000명에서 750,000명의 자급적인 농민이 이미 농업을 그만 두었다고 추산된다.

멕시코나 필리핀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로 손실을 본 것은 아니다. 농산물수출에 박차를 가한 사람들 외에도, 이들 나라의 도시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낮은 농산물 가격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아 비효율적인 농민에 대한 보조를 정당화할 수 없다. 어찌 되었든, 수익 분배와 빈곤에 즉각 미치는 영향은 고민스러운 것이다.

### 자유무역으로 인한 고용상의 이득

손익면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값싼 노동력이 유리한 지역에서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이주송출국가가 이익을 얻게 되리라는 점이다.

### 농업

예를 들어 농업분야에서 NAFTA의 결과 멕시코가 이익을 얻은 것 중의 하나는 미국으로 더 많은 과일과 야채를 수출하게 된 점일 것이다. 이는 멕시코북부에서 이미 잘 형성되어 있는 산업이다. 그럼에도 많은 잠재이주자들을 고용할 정도로 빠르게 확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한가지 이유는 필요자본이 매우 많기 때문일 수 있다. 딸기의 경우 확실히 그러하다. 캘리포니아는 전 세계 상업용 딸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재배 기술, 다양한 새로운 품종 -그리고 값싼 이주노동력에 의하여 막대한 생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1년 판매는 5억\$를 넘어서고 있다. 전 생산단가의 반 가량이 임금인데 딸기는 기계수확을 하기에는 너무 부드러워 1에이커 당 약 2,000시간을 일해야하며, 대부분 이민노동자들에게 주당 약 200\$를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빠른 성장은 농업의 "기계화가 아닌 멕시코인화"라고 묘사되고 있다.

어찌됐든 딸기사업은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다. 1 에이커의 딸기 생산을 하기 위한 단가는 에이커 당 12,000\$에서 30,000\$가량이다. 고품질의 딸기를 생산하는 50에이커의 딸기 농장은 일년에 적어도 평균 1백만\$의 투자가 필요하다. 동시에 이는 위험이 높은 산업이다. 신선한 딸기의 도매가는 딸기의 품질과 수요와 공급에 따라 한 상자에 4\$에서 22\$까지 변동이 무척 심하다. 그래서 비록 이익은 많을 수 있지만 (에이커 당 20,000\$까지) 손실도 심할 수 있으며, 살아남으려는 경작자는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 신선한 과일에 붙는 관세는 NAFTA 협상으로 인하여 없어졌으나, 멕시코에서 이자율이 높다는 사실과 아직 상하기 쉬운 물건을 빠르게 이송할 수단이 적다는 것을 고려하면, 멕시코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비록 이러한 투자가 만들어져도 필요한 노동자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1990년대에 과일과 야채의 멕시코 경작지가 25%정도 증가하면 기껏해야 67,000명의 노동자가 늘어나리라고 한다. 이는 미국의 이민 농업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미국노동연구소는 미국에 약 670,000명의 이주농장노동자가 있는데 그 중 85%가 이민자들이라고 결론지었다. 1990년에 미국과의 무역에 근거한 멕시코 일자리는 전체 3,000만 노동력 중에서 2백5십만명을 조금 넘는다고 한다.(8.3%)

반면 이러한 이야기는 바뀔 수 있다. 최근에 멕시코의 토마토생산은 1996년 플로리다의 경작자들이 멕시코 상품을 몰아내려고 "토마토 전쟁"에 돌입하였을 정도로 주요한 세력이 되었다. 이 경우에 멕시코의 이점은 단지 값싼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더 맛있는 토마토를 생산할 수 있게 한 기술적인 우위점도 있었다.

#### 노동집약적인 산업

의류산업은 다시 가난한 나라들이 더 잘살기 위한 고전적인 경로이다. 최근에 수출의 확대에 인하여 이득을 본 나라중의 하나가 방글라데시이다. 1982년-1983년과 1992년-1993년 사이 기성품 의류의 수출은 7백만\$에서 12억\$로 성장하여 전체 수출의 2%에서 52%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발전을 이룬 추진력은 한국투자자들이 유럽시장에서 방글라데시의 수출특권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1997년의 의류생산은 약 130만명을 고용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중 85%가 여성이며 대부분 젊고 미혼으로 한 달에 약 400\$을 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주에 미친 영향은 미약한 것 같다. 이 산업은 수출의 50%를 달하지만, 노동력의 단지 2%만을 고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이주하지 않는 경향의 사람들이다. 일부 젊은 방글라데시 여성들이 가정부

로 해외에서 일하지만,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남자이다. 그래서 이주에 미친 영향은 간접적이며, 그 방향 또한 모호하다. 가족수입을 충분히 증가시켜 형제들이 고국을 떠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또는 떠날 자금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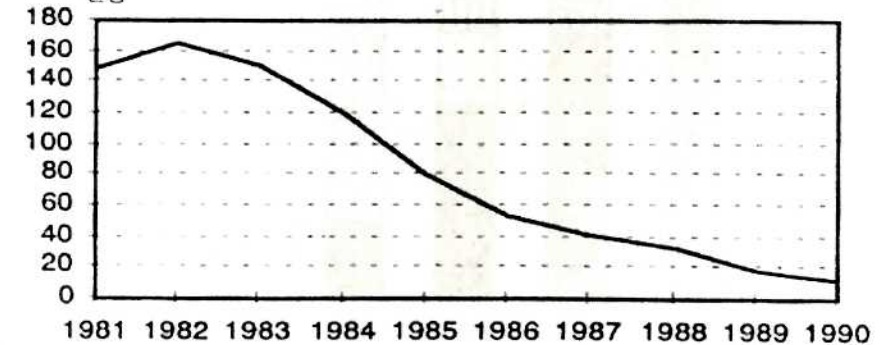
방글라데시가 가진 한가지 문제는 의류와 그 나머지 경제사이의 "이면의 연결성(backward linkage)"을 강하게 성립시킬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의류생산자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섬유산업조차도 그다지 없다.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수년간의 정치적인 동요로 기간산업을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은행제도는 미약하다. 이는 방글라데시와 다른 가난한 나라가 가진 심각한 위험을 드러내준다. 의류산업은 빨리 도착하였으나 역시 빨리 떠날 수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 인하여 할당된 특권을 잃을 수 있고, 중국과 같이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해야만 할 것이다.

무역이 한 개도국에서 다른 개도국으로 기우는 것은, NAFTA의 결과 이미 카리브 연안의 국가들 안에 느낄 수 있다. 멕시코의 미국에 대한 비관세 의류수출은 활기를 띤 한편, 카리브 국가들의 산업은 축소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6년의 말에 미국으로 티셔츠를 수출하던 자마이카의 한 공장은 더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멕시코회사에게 계약을 잃었다. 600명 이상이 (그 중 95%는 여성이다) 일자리를 잃었다. 그리고 한국인이 소유한 그 회사가 방글라데시로 장비를 보냈다. 1996년 세계은행의 한 조사는 카리브국가들은 NAFTA로 인해 미국수출의 3분의 1을 잃을 것이라 한다.

#### 6) 이민자들을 고국에 머무르게 하는 수출지향성장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무역 방식은 동남아시아의 신흥공업국에 의해 제시된 자취를 따르는 것일 것이다. 어쨌든 한국은 최근까지 노동력의 주 수출국이었다. 국외로의 탈출은 1981년에 절정에 달하여 당시에 중동에는 150,000명 이상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고국의 임금과 고용에 확대되자 노동력의 수출은 빠르게 쇠퇴하였다.(도표 4.4) 1990년 중동에서 한국인 수는 단지 8,000명으로 줄었다.

도표 4.4 한국의 이주수출, 1981 - 1990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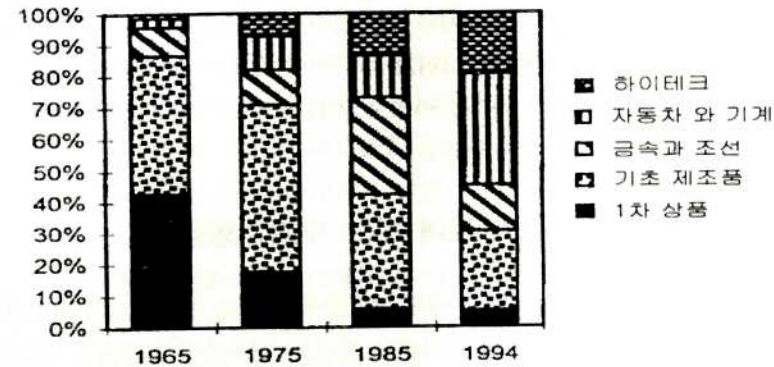


출처: Park, U.-b., 1991

이러한 쇠퇴는 한국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결과이다. 한국과 대만은 1950년대 이래로 천연농산품과 광물의 수출에서 벗어나 다양화하여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특히 의류와 섬유, 그리고 목재와 제지상품 수출을 빠르게 확대시켰다. 1980년 초기에 양국의 경제에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수출의 60%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임금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높아져서, 저임금노동력이 갖는 상대적인 이점은 점차 감소하였다. 이는 도표 4.5에 나타나 있는데 (식품을 포함한) 기초상품에서 목재와 제지, 의류와 제화와 같은 기본적인 공산품으로, 이후에 강철과 선박, 전자기계와 자동차, 그리고 마침내는 화학, 약제, 컴퓨터, 그리고 통신기계와 같은 하이테크 상품으로 진화해 나가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1세대 신흥공업 국가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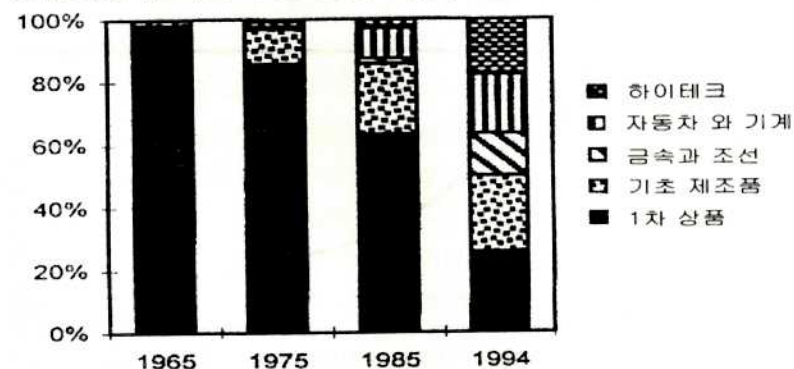
차세대 신흥공업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1967년과 1994년 사이에 섬유, 의류, 제화의 수출이 0.2%에서 24.7%

도표 4.5 한국의 수출 변화과정, 1965 - 1994



출처 : UNCTAD, 1996a

도표 4.6 태국의 수출 변화 과정, 1965 -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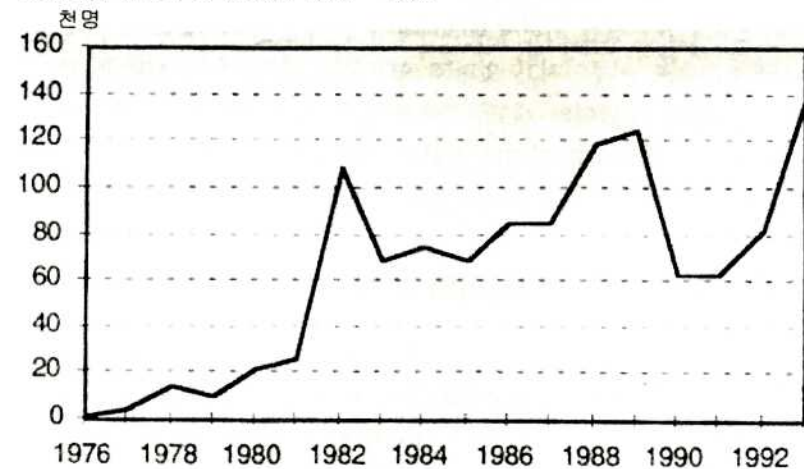
출처 : UNCTAD, 1996a

로 성장하였다. 태국의 수출변화가 도표 4.6에 나타나 있다. 태국은 훨씬 더 1차 상품에 의지해 왔다. (식품이 가장 중요한 품목이다.) 그러나 태국에서 금속이나 선박으로의 이전은 없고, 대신 하이테크 상품이 빠르게 도착하였다. 말레이시아도 하이테크 상품이 32%라는 더 높은 비율이지만 유사한 양식을 보여 준다.

그리하여 차세대 신흥공업국가들은 1세대와는 다른 방식을 보여준다. 첫 번째로 이들 국가의 수출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층과 하층에 모여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토질이 풍부하여 농산물을 계속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비록 이들 국가들이 하이테크 상품생산을 하고 있으나, 수출품의 가치 대부분이 이미 제조된 부품의 수입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 참여는 협소하다. 한국의 자동데이터처리장비의 경우, 부품의 수입은 수출가치의 24% 뿐이나 태국은 그 비율이 79%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차세대 신흥공업국가들이 하이테크산업 중 좀더 노동집약적인 공정을 맡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분업을 반영한다. 5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부분적으로 이들 국가의 산업이 자국의 기업을 개발하기보다는 외국 다국적 기업의 지부를 끌어들이는데 근거한 때문이다.

태국의 경제가 아시아 경제위기까지 붐을 이루었으나, 이민을 상당량 줄일 만큼 충분하지는 못했다. 도표 4.7이 나타내는 것처럼, 떠난 사람의 수는 여전히 많아서 한국의 초기와 유사하다. 이는 공식 수치이고 상당한 수가 채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등록되지 않은 송출업체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보내지거나, 관광객으로 떠나 일하기 위해 머무른다. 그러나 태국은 주로 사우디 아라비아, 브루나이, 싱가포르로 노동력을 송출하지만, 미얀마로부터 미숙련노동자들을 수입하기도 한다. 도착한 사람의 공식적인 집계는 1991년에 175,300명으로 떠난 숫자와 매우 유사하며, 그리고 최소한 그만큼의 사람이 더 불법으로 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 이주면에서 태국은 아마도 균형을 유지할 것이다.

도표 4.7 태국의 이주송출, 1976 - 1993



출처 : Scalabrini Migration Center, 1996.

차세대 신흥공업국은 만일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면, 이주를 저지하도록 수출지향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초기 "아시아호랑이"의 경험의 일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여 현재에는 많은 국가들이 노동자를 수입하며 동시에 송출하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주로 미숙련노동자를 수입하고 숙련노동자를 송출하지만, 말레이시아도 태국처럼 주요 수입국이며 동시에 송출국이다. 인도네시아는 미숙련노동자들을 중동,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송출하며, 대부분 인도와 필리핀에서 숙련노동자들을 수입한다.

수출지향 성장정책을 따르기는 원하는 국가들은 초기 신흥산업국가들이 직면하였던 것과는 매우 다른 세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십년간 산업생산의 구조는 제조업의 미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많은 산업들은 전체 생산가격 중 미숙련 노동의 비율이 1970년대에 평균 25%에서 1990년대 중반에는 5-10%로 떨어졌다. 예를 들어 반도체의 경우, 인건비는 전체 가격의 3%만을 차지하며, 칼라텔레비전은 5%, 자동차는 10-15%를 차지한다. 전통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인 의류와 제화는 약 30% 가량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있어서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절감된 노동요소는 무역역량의 증가로 상쇄 될 수 있다.

후발국가들은 또한 매우 다른 무역 환경에 직면할 것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큰 국가들이 무역으로 성장하려고 하면서 과다한 생산으로 시장이 범람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일부상품은 확실히 위험에 처해 있으나, 의류의 경우에는 여전히 뚫고 갈 길이 있다. 지금까지 개도국은 북미, 유럽연합, 일본에서 시장의 3분의 1가량만을 차지했기에, 무역장벽이 없어진다 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아시아의 빠른 성장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산업국가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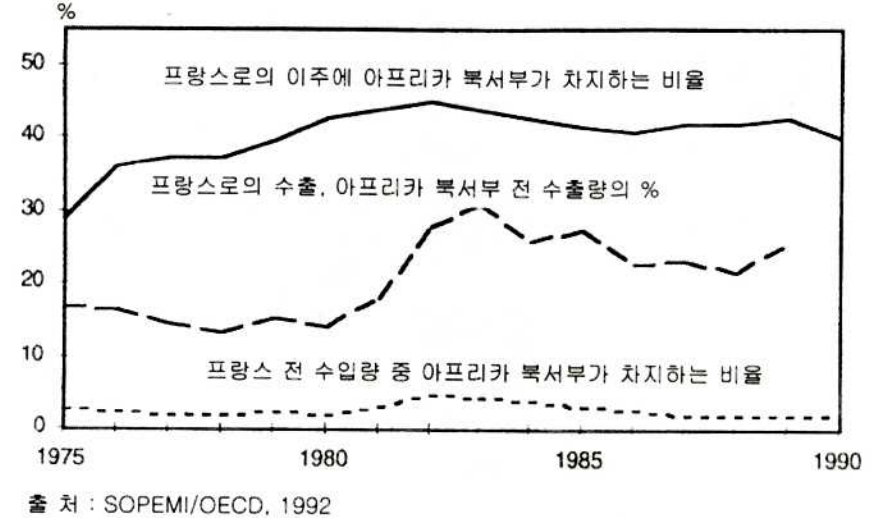
그러나 이들 후발국가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점차 높은 단계의 생산으로 발전될 수 있는지는 그다지 확실치 않다. UNCTAD의 한 연구는 OECD국가의 수입이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에 근거한 개도국의 수출 비율을 살펴보았다. 선발 신흥산업국가들에게 이는 80%이상이다. 그러나 차세대 공업국들은 훨씬 뒤쳐져 60%가량이며, 다른 개도국들은 발전이 훨씬 뒤쳐지고 있다.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칠레조차도 이러한 분야에서 수출은 12% 가량뿐이다. 사실상 중남미의 개도국중에서 단지 멕시코와 브라질만이 차세대 신흥공업국과 비견할 수 있는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차세대 신흥공업국처럼 이는 순수한 국내산업의 확장이라기 보다는 다국적기업의 침투에 더욱 근거하고 있다.

## 7) 산업국가의 수출과 이민사이의 관계

이주를 통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또한 무역을 통해서도 관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연관성은 지리적인 근접과 역사적인 밀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OECD는 3개 부류의 국가사이 1980년대의 상품과 사람의 이동을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는 프랑스와 북아프리카 북서부국가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독일과 터키; 그리고 미국과 멕

시코이다. 프랑스에 관한 자료는 도표 4.8에 나타나 있다. 비록 프랑스의 경우 줄어들기 시작하였지만, 세 개의 국가군 모두에서 이주송출국가들로부터 수입량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반면 상품의 이동과 사람의 이동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는 것 같다.

도표 4.8 프랑스, 이민, 그리고 아프리카 북서부로부터의 상품수입, 1975-1990



또한 이민자들이 자국에서 상품을 끌어들이 반대 방향으로도 상당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욕과 로스앤젤리스의 멕시코 거주지구의 상점에는 망고주스에서 옥수수가 루에 이르기까지 멕시코 상품으로 가득 차있다. 미국에 사는 3천2백만에 달하는 멕시코이민자나 후손들은 막대한 시장이다. 예를 들어 구루뽀 모델로라는 멕시코회사는 교포를 대상으로 모델로 스페셜이라는 맥주를 판매, 미국수출로부터 1995년 수입의 35%를 얻어냈다.

시장기회에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접근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고국에 무역을 확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가정은 1980년-1992년 사이에 캐나다에서 검증되었다. 특정국가에서 10%의 이민이 늘어나면 그 나라에 대한 캐나다의 수출이 1% 증가하며, 수입이 3% 늘어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초기이민자 중에서 무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기업 이민층이라기 보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 8) 결론

현재 국제무역의 불안정한 상태로 보아 확신을 가지고 미래의 동향에 대해 예견하기는 어렵다. 단기적으로 자유무역은 가난한 나라에서 이주자들을 더욱 송출하게 만들 것이며, 만일 무역으로 가난한 국가들이 경제를 재편하게 되어 노동력을 더 유용하게 사용하고 더 광범위

하게 근거를 둔 발전에 착수한다면 장기적인 효과는 더 긍정적일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자유무역은 산업국가의 수출증가로 인해 이주송출국에서는 일부 분야 - 특히 농업분야에 실업이 발생되어 이주를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민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는 충분히 상쇄될 것 같지 않다. 송출국가의 수출이 증가하면 산업국가의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고용이 일부 줄 수 있으며, 그리하여 이민노동력도 줄어들 수 있다. 적은 비율의 이민자들만이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10에서 20%- 가난한 국가와 직접적인 무역 경쟁에 직면하는 분야의 산업에 일하기 때문에 이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는 적을 것이다.

장기적 영향과 단기적 영향 사이 더욱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만일 무역이 좀더 천천히 자유화된다면, 이는 가난한 국가의 붕괴를 -그리고 이주를- 줄일 수 있는 한편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혜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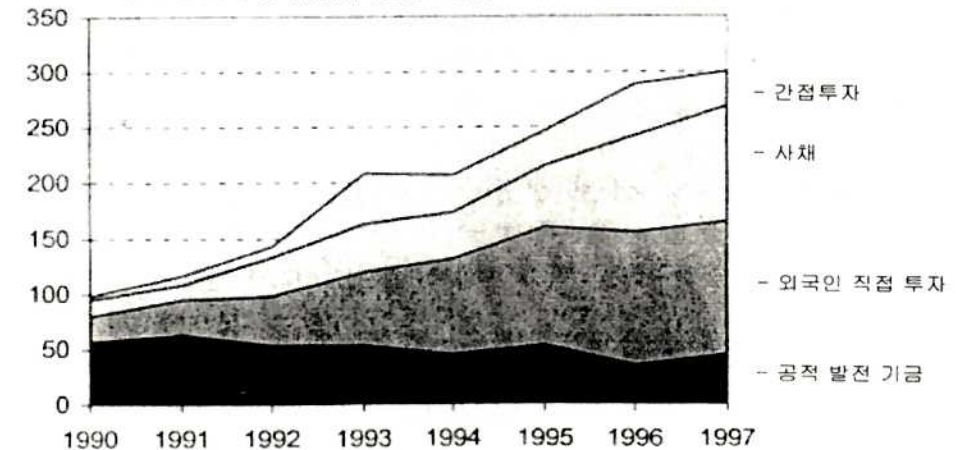
## 5. 자본에게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에게 자본을

4장에서 무역이 증대되면 국제이주를 해야만 하는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와 똑같은 질문이 자본의 이동에 대하여서도 주어질 수 있다. 자본의 유입이 무역을 위한 생산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국내발전을 촉진시켜, 고용과 임금을 증대하고 - 그리하여 노동자들을 고국에 머무르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자본은 국내에서 만들어진다. 빠르게 성장하는 동아시아의 경제는 국내저축율이 높아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갈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다른 개도국은 이를 따르기가 어려워 투자는 산업국가보다 훨씬 뒤쳐진다. 산업국가에서 노동자 일인당 평균자본은 150,000\$이나, 개도국에서는 단지 13,000\$이다.

국내투자에 기반을 두어 빠른 성장에 돌입한 국가들은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다. 대개 1990년대 동안 동아시아의 활력의 결과, 개도국으로 향하는 사적자본의 이동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도표 5.1은 자본이동의 성격이 최근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보여준다. 몇십년전에는 자본의 반 이상이 공적발전기금(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으로 도착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사적인 자본이동이 급격히 성장하였는데, 더욱 변동이 심한 형태인 간접투자이건, 사채이건, 또는 장기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이건, 1997년에는 사적자금이 전체 이동의 85%에 달하였다. 자본의 이동이 현저히 세계화되는 현상은 자본을 향해 노동자가 이주한다기 보다는 노동자에게 자본이 이동하여 이주가 약화 되도록 기여 할 수 있다.

도표 5.1 개도국으로의 총 유입량, 1990 - 1997



출처 : World Bank, 1998a.

## 1) 지분과 부채

1990년대 이래로 많은 금융기구와 사적인 투자자들은 위험할지라도 “새로운 시장”에 의해 약속된 좀더 높은 이득에 이끌렸다. 1980년대 초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개도국에 대한 간접투자가 1997년에는 330억\$에 달하였으며 (최고에 달했던 1996년의 460억\$에서 줄은 것이다) 상업상 부채는 1,030억\$에 달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유입은 환영받았지만, 반면 상당한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 만일 지분을 가진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잃으면, 자신이 출자한 것을 빨리 팔 수 있고, 이에 따른 가격의 폭락은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만일 회사가 거의 모두 외환으로 자본을 빌렸다면 평가절하의 위험에 직접 노출이 된다. 이러한 본질적인 부담 - 그리고 이주에 의미하는 바는 1995년 멕시코의 위기로 처음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의 시작으로 더욱 극적으로 노출되었다.

### 멕시코 페소화의 위기

1990년대 멕시코의 경제성장은 거의 외국인 예금에 의존한 것이다. 멕시코 국내의 저축은 GDP의 단지 14%에 지나지 않으며, GDP의 8%에 달하는 경상수지적자는 외국인 채권자들에게서 지원 받았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약 70%에 달하는 페소표시채권(peso-denominated bonds)과 80%의 달러표시채권(dollar-denominated bonds)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1994년 이전 4년간 멕시코는 640억\$의 간접투자를 이끌어 내었다. 불행히도 이 자본 중 생산적인 투자로는 충분한 양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멕시코의 소비자들은 이를 기회로 수입품을 쌓아 놓았다.

그 결과 페소화는 상당히 과대평가 되었으며, 외국인투자자들은 언제 평가절하가 될 것이 지 관망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페소화를 변동환율제로 할 수밖에 없었고, 페소는 50%이상 가치를 잃었다. 이어진 경제침체는 멕시코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과 실업의 두 가지 측면에서 심한 타격을 입혔다. 평가절하의 결과 미국과 멕시코의 임금격차가 8:1에서 12:1로 커졌다는 사실에 자극을 받아, 실직한 노동자들은 여행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1995년의 1월과 2월에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외국인의 수는 1년전보다 30%이상이나 많아졌다.

단지 멕시코의 이민이 가속화된 것 뿐 아니라, 수입을 줄여서 미국의 일자리가 없어지리라는 예상 때문에 미국 측에서 우려하기 시작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한 미국은행의 예상에 의하면, 멕시코에 대한 수출이 100억\$가량 줄어든다면, 많게는 100,000개의 미국내 일자리가 없어진다. (수출이 50,000\$이 되면 1개의 미국일자리가 생긴다) 결과적으로 클린턴행정부는 급히 200억\$의 차관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 멕시코인은 결국 125억\$을 빌렸다. 이는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1995년 6%이상의 산출이 감소한 이후, 1997년 실질적인 GDP성장은 6% 이상이었다. 이러한 회복은 국경을 따라 위치한 마필라도라 (maquiladora)공장의 연이은 성공에서 명백히 보여진다. 1996년 중반경 3,233개의 공장이 있었는데, 전부 800,000명을 고용하여 하루에 2교대로 계속 가동하였다.

“달러경제”가 잘 진행된 한편, 계속 위축되던 - 그리고 대부분의 잠재적 이주자들이 일하

는 멕시코내 “페소 경제”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생긴다. 달러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한 의구심이 든다. 외채는 곧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말경 사기업의 외채는 수출의 40%에 달하였으며 - 이는 외환위기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 1998년 중반 외채평가기관은 외채가 급격히 상승하면 멕시코는 “시장신뢰도가 변화할 가능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아시아의 경제위기

멕시코의 경험은 아시아의 경제기적이 갑작스런 종말을 맞이하여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연되었다. 1997년 7월 태국 바트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이어,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급격한 통화의 평가절하와 주식시장의 붕괴와 함께 전염병처럼 이 지역에 빠르게 번져나갔다. 자본은 막대한 양으로 빠져나갔다. 1996년에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960억\$에 달하는 외자가 흘러들어 왔다. 그러나, 1997년에 120억\$의 순 유출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엄청나게 불안정한 변화로, 이들 국가의 경제를 뒤집어 놓았다. 1996년에는 6%이상이었던 태국의 성장은 1997년에는 제로상태였고, 19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되었으며, 다른 나라도 급격한 감축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반전의 근원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되고 있다. 이에 확실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러한 상황은 멕시코에서 일어난 것과는 매우 다르다. 많은 나라들이 회계균형, 저물가, 높은 저축, 그리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제도 등의 경제적으로 건전한 정책을 추구하였다. 고율의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외채를 허용한 새로이 자유화된 재정환경에 대한 빈약한 규제가 주된 취약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채는 국내저축이 이미 GDP의 30%가량이나 되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외채를 사용하여 투자율을 40% 이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며 또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이는 과대평가 된 환율과 함께 외국으로부터 값싸게 빌릴 수 있게 하여 낮은 질의 프로젝트와 자산투기로 빠지게 하였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시중은행 빚의 4분의 1가량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위기가 금융시장의 반응, 과잉반응의 속도에 의하여 확대되어 - 정상화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화폐가치와 주식평가액의 붕괴와 함께 - 실업과 가난을 증대시켜 하는 일련의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와는 달리, 이 나라들 대부분은 -대개는 서로서로- 이주자들을 송출하면서 수입하는 나라들이어서 복잡한 이주의 형태를 만들어 낸다. 그 영향은 나라마다 다르나 수입국의 경우에는 이민자들을 쫓아내려는 대중적인 감정이 일시적으로 생겨나지만, 이 후 비록 실업률이 높아도 본국인은 그들이 하는 일을 기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1997년 중반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홍콩, 대만 등 7개의 아시아국가와 지역에 650만이 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표 5.1에 나타나 있다. 1998년 중반 주요 노동력 수입국 중 외환위기에 의하여 타격을 받은 나라는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이며, 노동력 수출국가 중 가장 타격을 받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이다.